

Chitropy spike

2024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회화전공
졸업전시

목차 | Contents

서문	Introduction	6
인사말	Greeting	8
교수진	Faculty	10
작가	Artist	12
작품	Works	15
프로필	Profile	153

서문 | Introduction



엔트로피 스파이크(Entropy Spike)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국민대학교 예술관에서 미술학부 회화전공 제24회 졸업전시회 <엔트로피 스파이크>를 선보인다. 엔트로피는 열역학 제2법칙으로 정의된 개념으로 폐쇄된 체계 안에서의 열역학 상태를 말하며, 종종 불확실성과 무질서에 연계되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연 안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나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체계는 무질서해지며 궁극적으로 소멸을 향해간다.

우리의 삶도 이 법칙에서 예외는 아니다. 정리해 둔 책상은 결국 어지럽혀지고, 잉크는 섞이고, 얼음은 녹아 물이 된다. 이는 모두 자연의 불가역적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어지럽힌 방을 정돈하고, 쏟은 물을 주워 담고, 질서 있는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엔트로피를 낮추고 있다. 예술가의 창작 과정도 도처에 흩어져 무용하게 잊혀질 수 있는 의미들을 모아 새롭게 형상화하고 재맥락화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하다.

이번 전시 제목에 포함된 '스파이크'란 높아지기만 하는 엔트로피,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흐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항하는 우리들의 모아진 힘의 표현이다. 34인의 작가들은 흩어진 생각과 다양한 재료들을 모아 작품을 함께 만들면서 무질서와 소멸로 향하며 증가해 가는 엔트로피를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제24회 졸업전시회 <엔트로피 스파이크>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으로 만들어낸 순간이다.

인사말 | Greeting

제23회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회화전공 졸업전시를 개최하며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개최되는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회화전공 졸업전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엔트로피 스파이크(Entropy Spike)>라는 제목으로 34인의 다양한 잠재력과 독창적인 조형적 표현을 선보입니다. 매년 졸업 전시의 제목은 졸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간의 토론을 통해 결정됩니다. 그동안 회화를 전공하면서 다소 혼란스럽거나 모호하기도 했던 창작과 배움의 과정 안에서 습득한 현대 미술의 다양한 미적인 어법과 논의를 한 자리에 모으면서 정한 제목에 엔트로피를 언급된 것이 시사적이면서도 성찰적이라 생각됩니다.

엔트로피는 닫힌 체계 안에서 물질의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의 척도이지만, 이러한 열역학적인 정의를 넘어 정보량 및 자연 현상의 에너지 변화의 방향 등을 설명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고립된 세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하며 이것은 무질서의 방향으로 향한다고 설명됩니다.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힘을 투여하여 재정렬함으로써 증가하는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미시적으로나 거시적으로 급격하고 강한 강도의 변화들을 다층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발전에 대한 욕망이 기술적으로 빠르게 충족되어가는 한편, 인간적인 삶의 본질에 대해 재고하게 되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무한한 발전의 결과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시 제목은 현재의 예측불가한 변화에 대한 작가들의 독자적이고 예술적인 대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물리량의 척도로만 측정되지 않는 열린 체계 안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예술가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성찰은 무질서의 상태가 아니라, 공동체에 건강한 감성 에너지를 널리 확산하여 평형의 상태로 이끌어 가는 적극적인 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회화전공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습득한 기량을 가지고 졸업하는 34인이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도약할 능력과 전망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전 형식으로 교내에서 졸업 전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학년 학생들이 원활하게 소통했던 경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능력과 소양을 계발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작가로서 개인의 작업 세계를 계발하는데 몰두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의 균형은 성숙한 사회인, 예술가로서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각자의 길을 나서는 34인의 졸업생들이 앞으로 걸어갈 미래에 보람된 성과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반드시 필요한 인재로서 활동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12월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회화전공 주임교수 김희영

교수진 | Faculty

구수현	Koo Soohyun
권기동	Kwon Kidong
김보경	Kim Bo-kyung
김웅현	Kim Woonghyun
김인영	Kim In-young
김지현	Kim Jihyun
김태진	Kim Taejin
김호정	Kim Hochung
김희영	Kim Hee-young
나광호	Na Kwangho
박민희	Park Minhee
서동욱	Suh Dongwook
서해영	Seo Haeyoung
신장식	Shin Jangsik
유장우	You Jangwoo
이준형	Lee Joonhyung
이희정	Lee Heejung
장선희	Jang Sunhee
정윤영	Jeong Yun-young
조희원	Cho Heewon
최지혜	Choi Jihye
최태만	Choi Taeman
한수정	Han Sujung

작가 | Artist

구여진	Goo Yeojin	유효린	Yoo Hyorin
구하연	Koo Hayeon	이민진	Lee Minjin
김나영	Kim Nayoung	이세환	Lee Sehwan
김다은	Kim Da-eun	이송희	Lee Songhee
김영우	Kim Youngwoo	이수민	Lee Soomin
김예나	Kim Yena	이유진	Lee Yujin
김지영	Kim Jiyoung	이주현	Lee Jueheoun
김태현	Kim Taehyun	이채령	Lee Chaeryeong
박예진	Park Yaejin	이현아	Lee Hyuna
배지영	Bae Jiyeong	장은수	Jahng Eunsu
서진영	Fregha	전효빈	Jeon Hyobin
설윤서	Seol Yunseo	정다빈	Jung Dabin
송수현	Song Suhyun	조은서	Cho Eunseo
송유하	Song Yuha	채지혜	Chae Jihye
신혜민	Shin Hyemin	최수연	Lee Symptom
안현진	An Hyeonjin	최어진	Choi Eojin
오예지	Oh Yeji	최지민	Choi ji-min

구여진 Goo Yeojin

공의 나라

사회에 나가기 전, 젊은이들은 커다란 불안의 시기를 겪는다.
어려운 취업 시장과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는 좌절,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 한데 뒤엉킨 시기다. 어딘가를 가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인지 모르고, 인생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 내가 놓여있다는
생각이 자꾸 듦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놓친 것 같은
상실감에 계속 과거를 반추하고는 한다. 우리는 지나치게
20대를 선망하고 이후의 70년에 대해서는 냉담하다. 본인의
집에서 5톤이 넘는 쓰레기에 깔려 죽은 노인의 뉴스를 봤다.
흔적을 모두 끌어안고 죽은 그에 대해 생각한다.

쓰레기는 어찌 됐든 사람이 남긴 흔적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흔적을 계속해서 지워나가야 한다는 뜻과도 같다. 우리는
어쩌면 사는 동시에 잃어가고 있는 거다. 우리 인생의 전반을
공허가 채우고 있다.

가끔 어느 만화를 떠올린다. 내가 더 사랑하게 할 거야,
넘어지면 일어나게 할 거야, 내일을 기대하게 할 거야라고
작은 별이 중얼거리는 장면이 있다. 나는 상실이 가득한
폐허에서 작은 별이 떠오르길 바란다. 인생 전반을 채우는
공허에서 손을 휘적거려 무언가를 잡아야 한다면, 손에 잡힐
만한 아주 작은 돌을 기대한다.



실의 산

HD single channel video,
color,
15min 47sec,
2024

허의 집,

HD single channel video,
black and white,
15min 46sec,
2024



구하연 Koo Hayeon

이상한 원

당신은 삶의 영역을 획득하였는가?

이 작업은 어릴 때부터 시작된 기준에 맞추려는 압박 속에서 비롯되었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곤 했으나, 오히려 이상한 아이로 여겨졌다. 이러한 경험은 두 경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준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주었는데, 여러 기준 사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영역을 형성하려는 시도 속에서 경계에서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이에 따라 언제든지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과 어떤 것도 확신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혼란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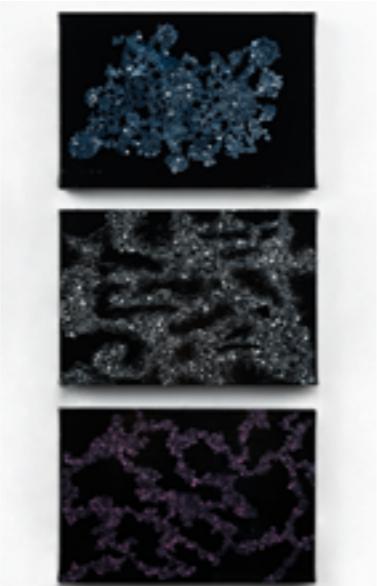
(이상한 원)은 틀에 맞추려는 마음과 벗어나려는 두 상반된 감정이 혼재한 삶을 살아가며, 외부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생성하고 소멸시키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반복적으로 비정형적 원을 그린다.

사람은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없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이고 기준이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완벽한 원을 그리기 위해 계속해서 원을 그린다. 이러한 수행적 행위는 염원을 담아 올리는 제의적 행위와 유사하다. 한 번의 봇질로 원을 그리며 확실한 경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과 염원을 담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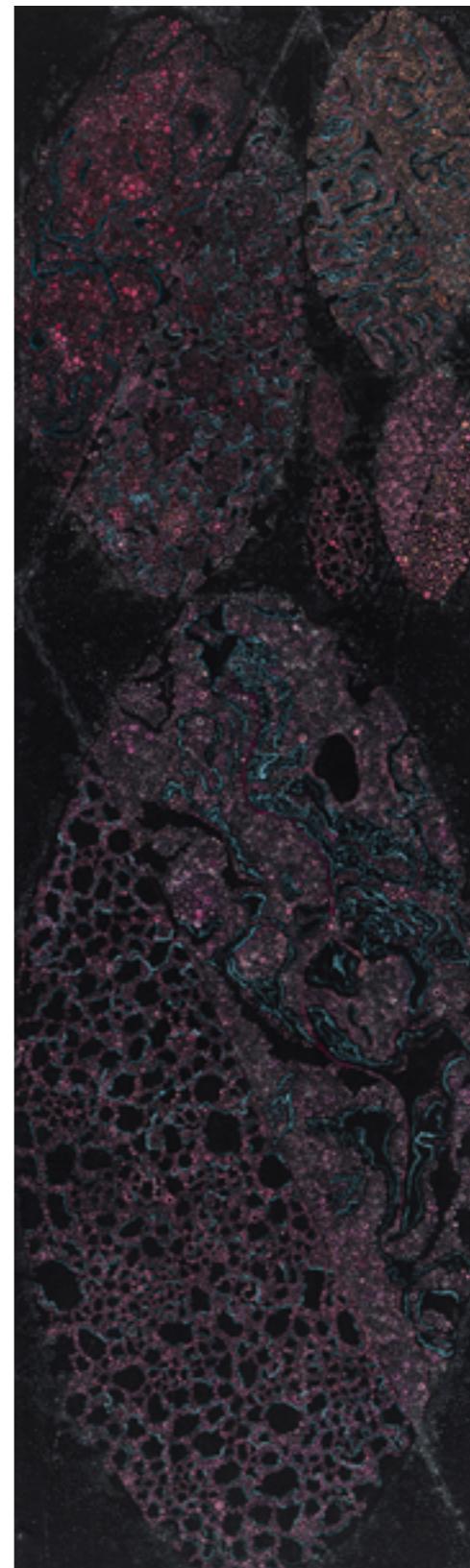
또한, 검정 화면에 반짝이는 물감은 자개를 떠올리게 하는데, 어릴 적 할머니의 자개농에서 영감을 받았다. 자개 특유의 빛깔은 균형과 이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검정 화면에서 각각이 고유의 빛을 내는 원은 여러 경계에서 균형적으로 살아가는 이상적인 기준을 상징한다.

반복적으로 그려진 비정형적 원은 무수히 많은 기준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모호한 경계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모호한 기준은 살아온 환경, 경험, 지식의 무의식적 활동이고, 그것이 나를 만드는 과정의 한 축이자, 역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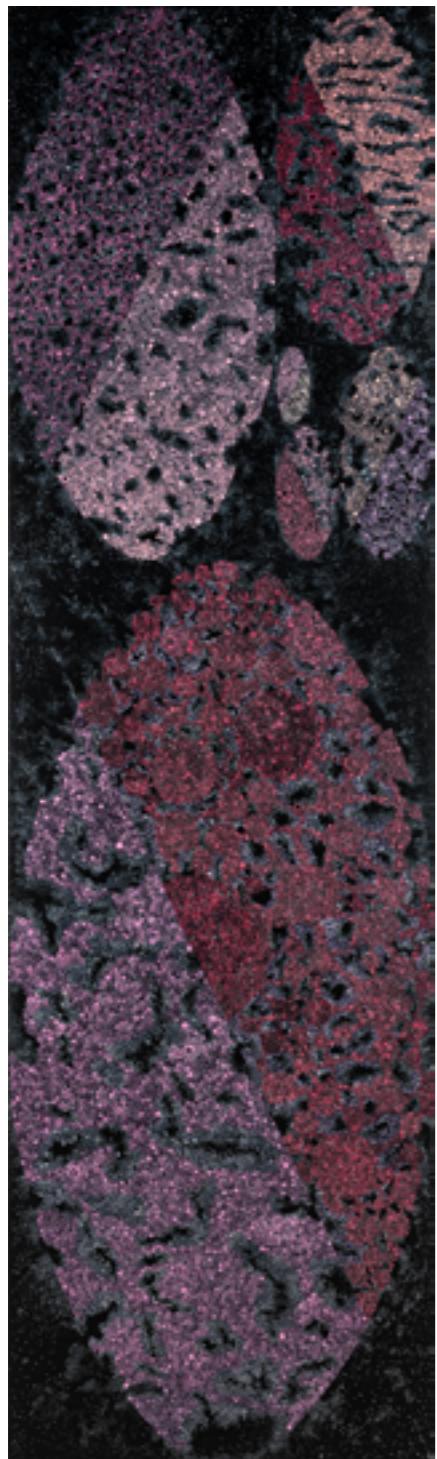
이 작업은 살아오면서 만들어내고 삭제해온 것들을 그려 나가며, 스스로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를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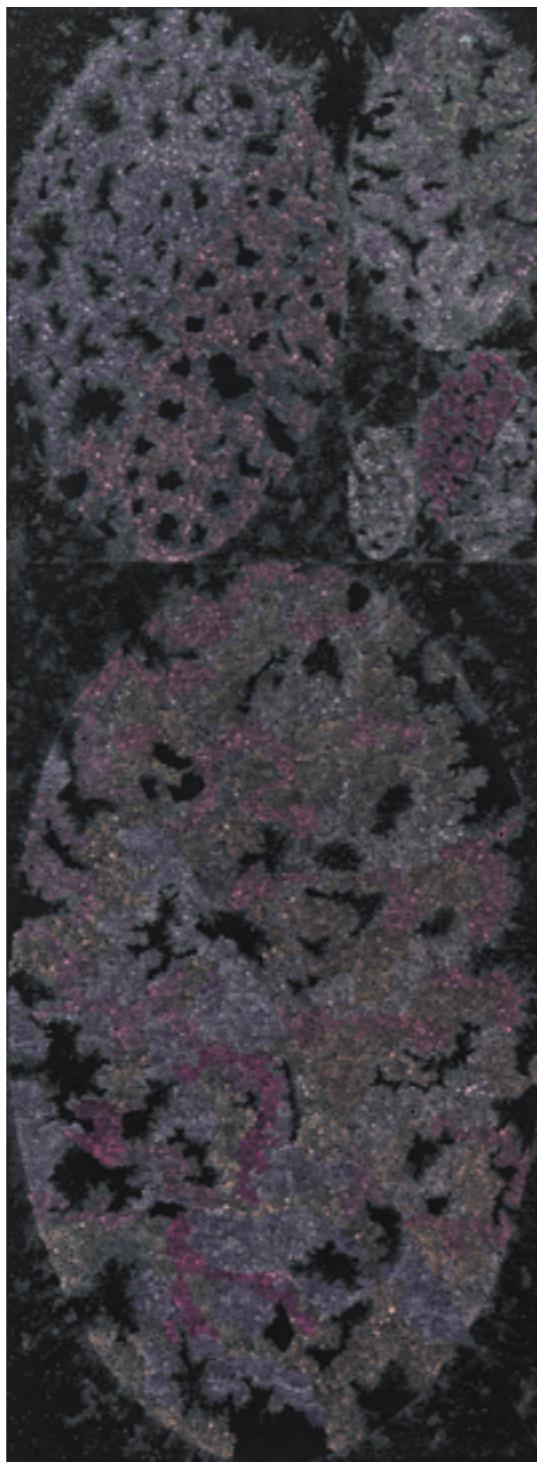
원들의 집합, acrylic on canvas, pigment, 57.7×25.8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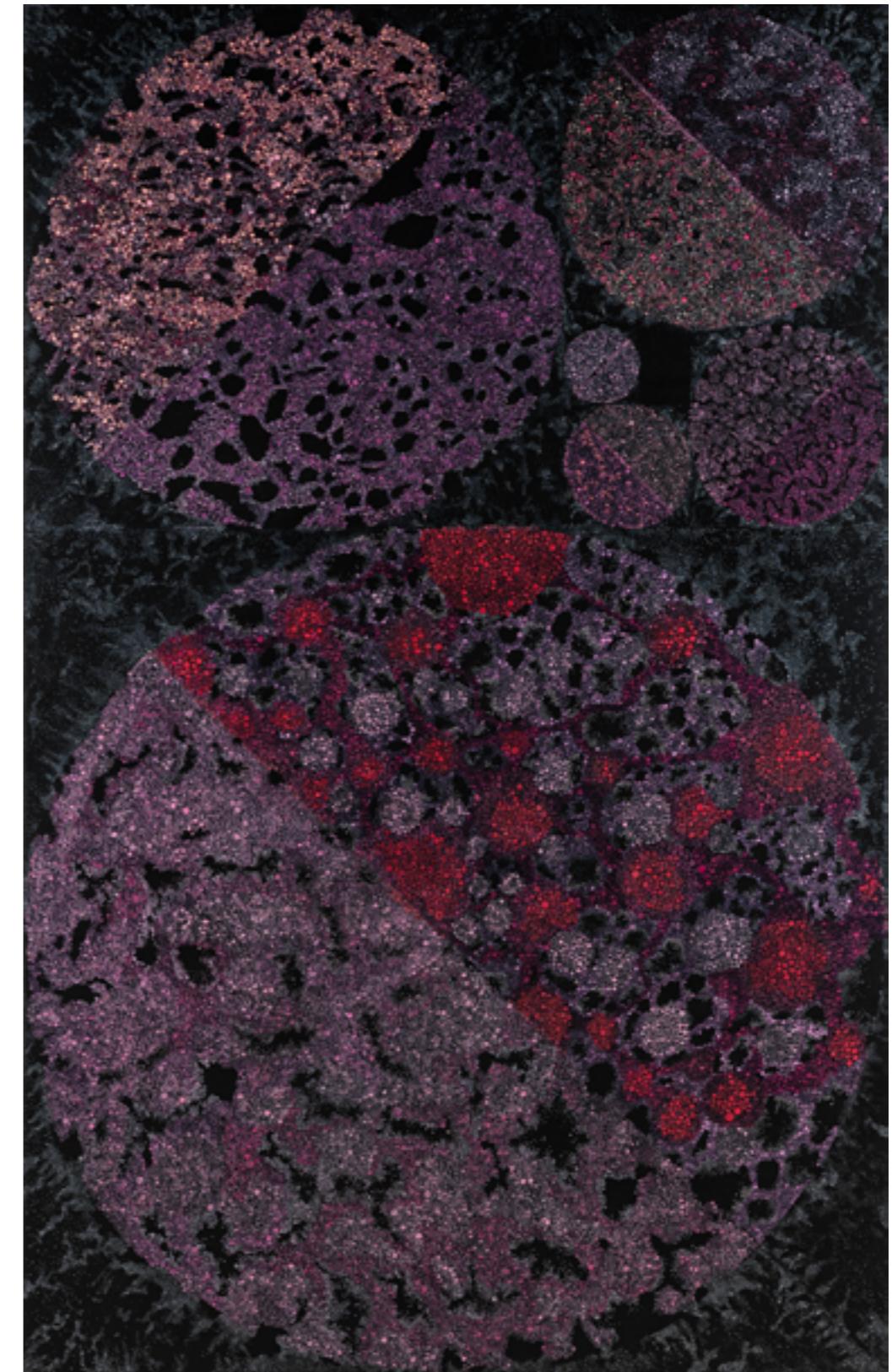
Untitled, acrylic on linen, pigment, 158×47cm, 2023



Untitled,
acrylic on linen, pigment, 163×48cm, 2024



Untitled,
acrylic on linen, pigment, 163×61cm, 2024



Untitled, acrylic on canvas, pigment, 158×100cm, 2024

김나영 Kim Na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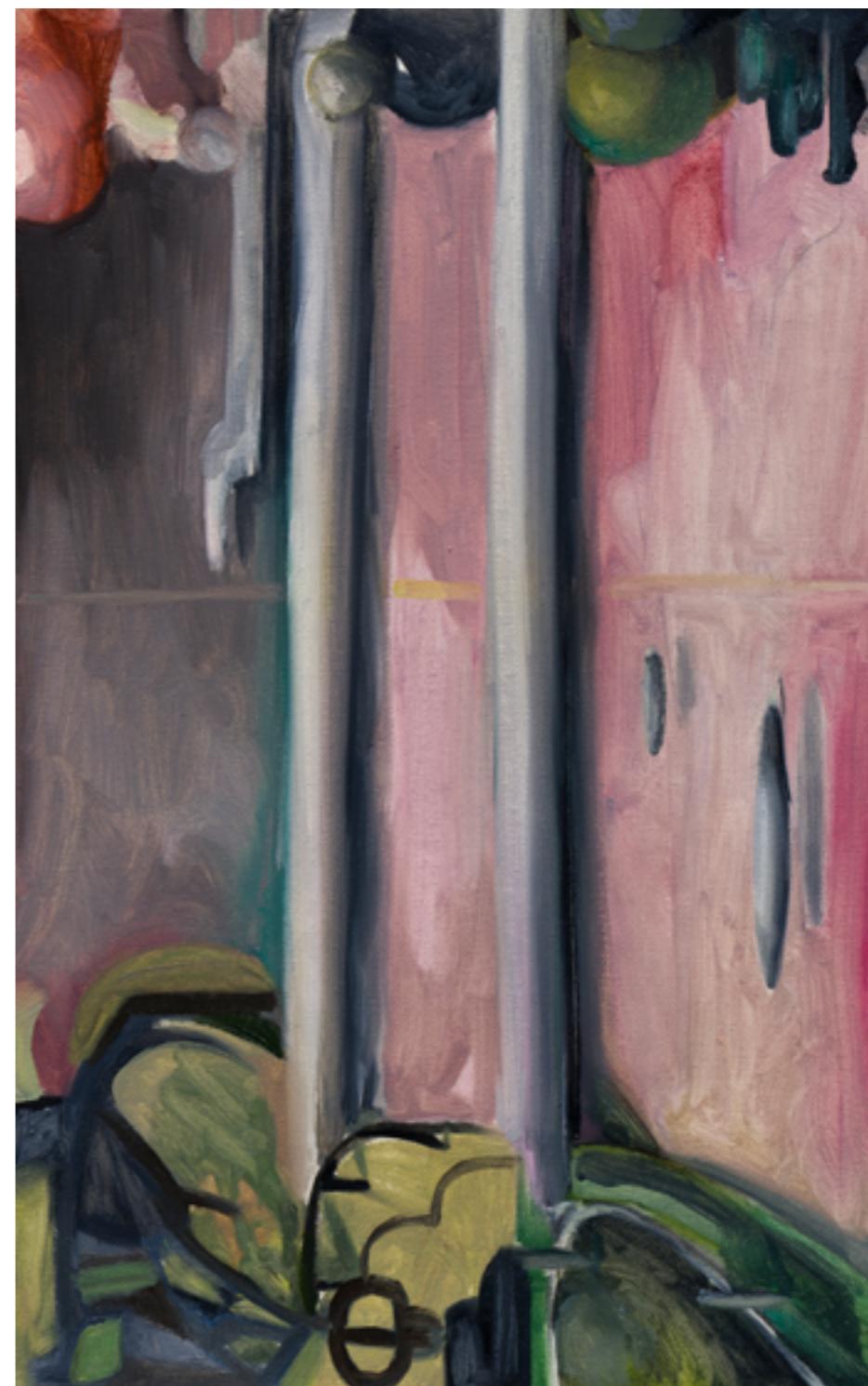
100번을 뒤돌아보는 일

미래에 다가올 소멸이나 단절에 대한 인간적인 불안은 나의 현재를
온전히 보낼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상태를 극복하려는 방법으로서
이미 지나가거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흔적을 계속해서
되돌아본다. 확실하고 단단한 것에 자신을 끓어두고 어떻게든
유의미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부산물들에 애정을 지니게
된다. 남아있기를 기대했던 순간들, 의미를 부여했던 장면들의
사진이나 기록 같은 부산물을 주워 담다 보면 그 자체로는 의미를
소진한 다른 무언가가 된다. 이것들을 되돌아보는 것, 소유하는
것은 내가 미래와 과거의 사이에 걸쳐진 상태로 만들며 이 과정에서
무엇이 남을지 가늠해 보게 한다.

나의 작업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집착과 이를 붙잡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불안에 대한 감각을 풀어내려 한다. <42:40>와
같은 시리즈는 애정을 쏟던 서사물(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장면을 캡처하고 확대하여 픽셀 단위로 해체된 이미지에
다시 형태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장면이 구체성을 잃는 동시에
새로운 형상으로 태어난다. 따라서 불확실하지만 실재하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흐려지면서도 물리적 존재로 남아, 무언가를
보존하려는 시도와 해체하려는 양가적인 욕망이 담긴다.

<Explorer>시리즈는 점토와 크랙이라는 소재를 사용한다.
단단하고 물질적이지만 쉽게 파괴될 수 있는 재료로, 이중적인
상징을 지닌 소재로 기능한다. 마치 오래된 화석이나 박제물처럼
사라진 것을 기념하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과 같이 흔적을 캔버스에
붙잡고자 한다.

작품의 각 요소는 형태를 눈으로 따라갈 순 있으나 파악할 수 없는
미완성된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그리는 것들은 연약한 상징을
내포하거나 소중하게 여겼던 순간을 담은 이미지들이다. 이것들을
나의 곁에 종결되지 않은 채로 붙잡아두며 캔버스와 유화라는 오랜
전통의 재료로 담아내도, 그것 자체로는 영속할 수 없는 법이다.
일련의 행위는 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붙잡고자 하는
동시에,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서 머무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



42:40, oil on canvas, 26×41cm, 2024



Explorer1, clay and oil on canvas, 22×27.3cm,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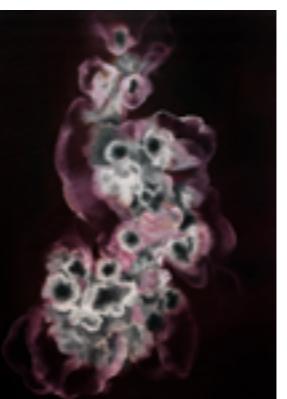
토끼의 집, acrylic and oil on canvas, 90.9×60.6cm, 2024

김다은 Kim Da-eun

숨결의 연대기

어릴 적 키우던 산호초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이 있다. 산호초는 생명의 기원을 상징하는 화려한 색채를 지니고 있지만, 죽음이 다가오면 그 색을 잃고 하얗게 바래며 산호에 공생하고 있는 모든 생명을 의도적으로 떠나보낸다. 이 현상은 생명의 찬란함과 유한성,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함을 상징한다.

이번 작품의 중심 주제는 '생명과 죽음의 순환'이다. 산호초는 개별 세포처럼 분리된 존재이지만, 서로 얹히고 연결되어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죽음 이후에 산호초는 새로운 유생이 정착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계를 이루게 되는 과정을 통해, 생명과 죽음의 순환이 이어짐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산호초를 세포와 같은 형태로 풀어냈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선 다양한 존재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 탄생과 소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연대기4,
oil on canvas, 33.4×24.2cm, 2024

연대기2,
oil on canvas, 33.4×24.2cm, 2024

연대기3,
oil on canvas, 33.4×24.2cm, 2024



연대기1,
oil on canvas,
145.4×53.0cm, 2024



산호초, 혼합매체, 가변설치, 2024



Wave, oil on canvas, 162.2×130.3cm, 2024

김영우 Kim Youngwoo

Explosion at a Vertex

나는 공백의 상태에서 시작해, 우연의 소산으로 얻은 정보들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기를 반복한다. 그리고, 지금 내게 온 우연은 '폭발'이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폭발은 불꽃이 튀거나, 새까만 연기가 나거나, 굉음이 들리는 것 같은 이미지로 쉽게 그려지지만, 내가 수집한 폭발들은 전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거대하고 파괴적인 형태라는 것은 알겠으나, 한없이 고요해 보였고, 순간 반짝였다가 금방 사라질 것이 아닌 구름처럼 아주 천천히 이동하고 개화하는 꽃처럼 아주 느리게 피어오르는 무언가 같았다.

이 폭발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

왜 피어오르게 되었을까?

모든 것은 다 핵이었다. 다시 말해 수집한 모든 이미지는 핵폭발이었다. 내가 아름다움을 느껴 수집한 것들이 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주체를 알 수 없는 거북함을 느꼈다. 그것이 핵 자체에 대한 거북함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예쁘네' 하며 그것을 그리고 싶어 한 자신에 대한 거북함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거북함이 나를 이 곳까지 끌고 왔다.

처음 느꼈던 감정 그대로 폭발을 그려보자 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아름답게, 그보다 더 고요하게 그려보자 했다. 작업은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을 탐구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통해 새로운 시각과 생각할 거리를 발견하기를 바란다.



Castle Bravo,
soft pastel on paper, wood frame, 106×86cm, 2024

Licorne 1,
soft pastel on paper, wood frame,
58×47cm, 2024

Licorne 2,
soft pastel on paper, wood frame,
47×47cm, 2024

Trinity,
soft pastel on paper, wood frame,
32×47cm, 2024



김예나 Kim Yena

누군가의 땅 위에서 On someone's land

On someone's land 는 빈 틈 없이 사유화된 도시 가운데서
무료 식재료인 산나물 구하기에 실패하게 된 경위를
들여다본다. 산나물은 땅도, 집도, 돈도 없는 개인의 명을
이어주던 희망의 상징으로 채택되어, 영상을 통해 이주민
채집생존의 역사와 농지 개혁의 시대를 가로지른다.
내게 산나물은 무료 식재료이면서 역설적으로 무료
생존은 불가능한 구조의 현 사회를 발견하게 하는 허망한
탈자본주의의 상징이다. 산나물을 구하지 못하고 산 나물을
구해 와서 나는 그것을 다시 산나물로 되돌리고자 사람들을
먹였다. 산 나물이 산나물이 되는 순간에는 공동체 안에서
탈자본주의의 실현가능성과 한계가 드러나기도 한다.

설치에 더해지는 회화는 이러한 내 나라에 대한 이미지들을
단어를 모아 시를 쓰듯 느슨한 방법으로 수집해 조합한
것이다. 각각은 개별적 이미지로 전시장에서 중첩되거나 앞,
뒤, 옆에 구성되며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하게 한다.

누군가의 땅 위에서 .

사람들은 수확을 했다 .

사람들은 누군가의 땅 위에서 .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

나도 그것을 진심으로 즐겼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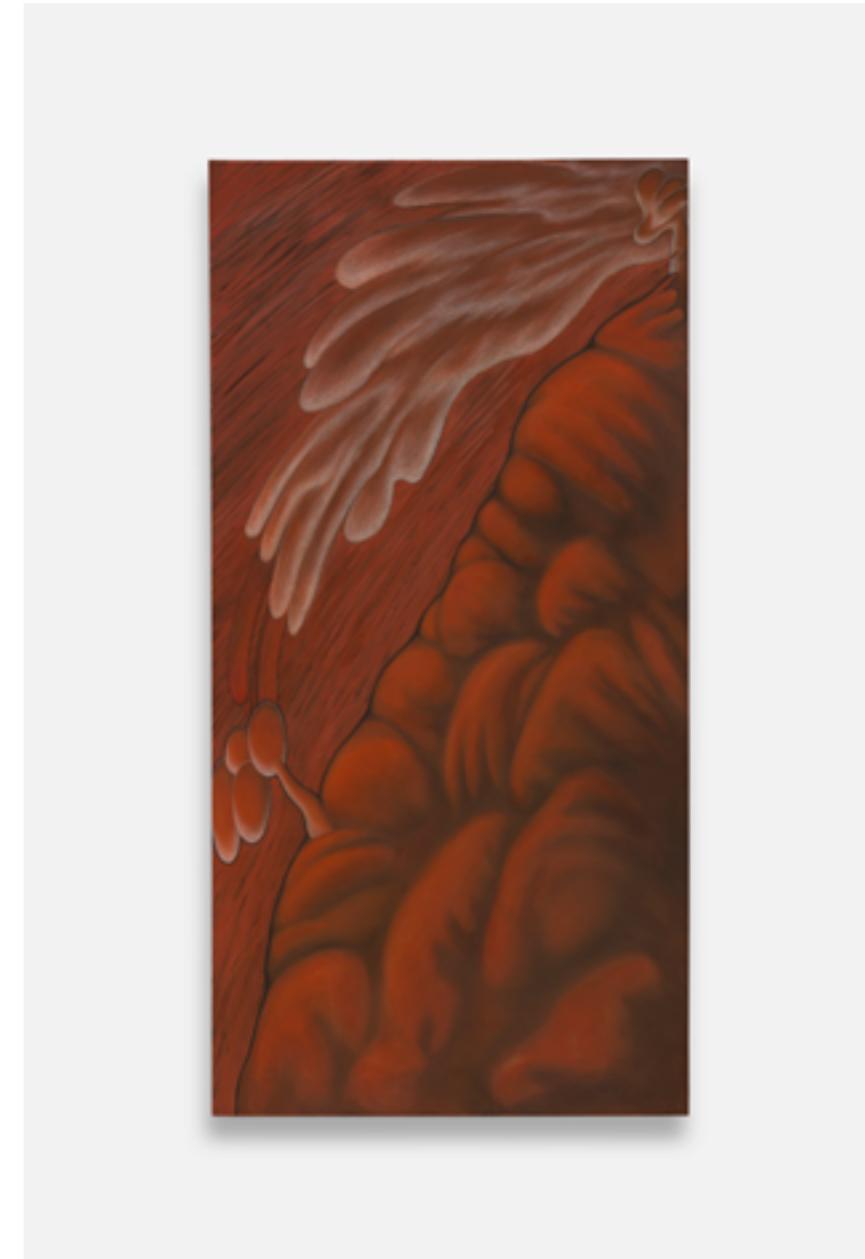
나는 두더지 구멍들을 고맙게 바라보았고 .

나의 식량을 위한 숨구멍을 뚫어 주는 그에게 감사했다 .

*

산나물 - 산에서 나는 나물

산 나물 - 사온 나물



Untitled (Moment 1), casein on panel, 105×210cm, 2024

Untitled (Moment 2),
casein on panel, 105×210cm, 2024

Untitled (Tree grows 1),
casein, wood, 75×214cm, 2024

Untitled (Tree grows 2),
casein, wood, 75×214cm, 2024



On someone's land,
1 channel video,
dimensions variable,
2024

김지영 Kim Jiyoung

강렬회화연구소

시각은 우리 감각 중 가장 지배적인 영역을 차지하며, 내가 회화에 몰두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시각적 자극이 곧 감정적 충격으로 이어질 때, 강렬함은 본능적으로 반응을 일으킨다. 나는 회화를 전공하면서 이 시각적 강렬함을 추구하며, 시각적 이미지가 우리의 감각과 사고를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해 왔다.

〈표정세계〉는 이 탐구의 일부로, 사람의 표정이라는 강렬한 시각적 요소에 집중한다. 감정은 얼굴에 가장 응축된 형태로 드러나며, 그 미묘한 변화들이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 이 작업은 표정을 화면 가득 채움으로써 관람자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각적 충격을 전달하고자 한다. 표정 속 감정이 명확하지 않고 기쁨과 분노 사이를 넘나들게 함으로써, 해석의 여지를 남겨 더욱 강렬하게 다가오도록 유도한다.

〈인간세계〉는 인간의 존재를 규정짓는 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얹힌 관계는 실존의 근본을 이루어, 그 안에 강렬한 충돌과 조화가 내재한다. 이 작업은 모나리자주의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을 레퍼런스로 삼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표정을 그린다. 표정은 격양된 상태에 있지만, 감정의 성격이 모호해 강렬함이 더욱 강조된다.

〈Create a Striking Image〉는 나의 시각에서 벗어나 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한 실험이다. 설문을 통해 다른 사람들 시각에서의 강렬함을 수집했고, AI로 이를 분석하고, 이미지를 생성했다. 이후, 나는 이 생성된 이미지를 물리적인 회화로 옮겨 감각적으로 재해석했다.



표정세계,
oil on canvas, 193.9×112.1cm, 2024



Create a Striking Image,
oil on canvas, 112.1×193.9cm, 2024



김태현 Kim Taehyun

← 어딘가 익숙해

꿈을 꾸면서 자각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롭고 이상한 순간은
꿈에서 깨어나기 직전이다. 매일 같이 경험하는 이러한 순간이
작업의 시작점이다. 나는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탐구하며,
꿈과 현실의 문턱에 걸쳐져 있는 모순의 장면들을 구현한다.

꿈이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현실과
꿈 사이에서 자각할 수 있는 부조화와 이를 통해 느껴지는
이질감이 흥미로웠다. 꿈에서 현실로 넘어오는 순간은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게 되는 짧은 교집합의 순간이다. 그
때에 느껴지는 이질감은 곧 무의식의 흔적이자 의식의 거부
반응이다.

꿈에서 깨어나는 찰나에 느끼는 중첩의 감각을 현실에서 찾아
나서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한다. 나는 길을 가다 발견할 수
있는 “꿈만 같은 장면”에 집중한다. 이러한 장면은 의식과
무의식의 교집합이 반영된 장면으로, 아주 익숙한 현실의
모습이지만 어딘가 낯선 느낌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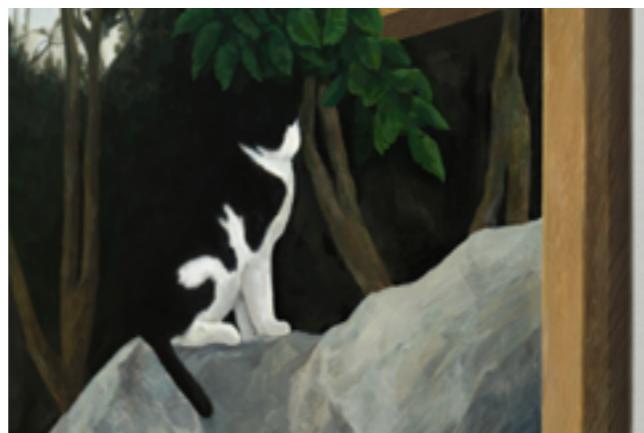
우리는 눈을 뜰과 동시에, 세상과 단절되며 들어갔던 나만의
세계인 꿈 역시 결국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작업에서 프레임은 의식의 틀로써 기능한다. 익숙한 듯 낯선,
그 애매한 경계의 순간에 틀을 씌우며 관객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은 결국 현실에서 비롯된 장면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꿈은 개인이 겪는 신비로운 해방의 세계가 아니며 결국 현실을
반영한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05시 61분, 캔버스에 아크릴, 145.5×112.1cm, 2024



마리아상, 캔버스에 아크릴, 130.3×80.3cm, 2024



검은고양이,
캔버스에 아크릴,
130.3×80.3cm, 디테일컷,
2024



박예진 Park Yaejin

73..75%

픽셀이 깨진 벽.. 흐릿한 창문.. 절벽..에 부딪힌다.

이 너머에 뭔가 더 있지 않은 건가?

(73.. 75%)은 호기심과 그리움의 모호함을 이야기한다.

첫 번째, 게임 속 평화롭고 영원할 것만 같은 공간을 연상하는 평면적인 벽에는 온갖 구멍이 뚫려 있다. 마치 이 벽 뒤편에 무엇인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벽을 넘어 돌아가 보면 엉성한 현실이 실현되어 있다. 과일 모양의 젤리와 플라스틱 전구. 그리고 벽 속 건물이 현실 어딘가에 있을 것 마냥 사실적으로 그려진 그림. 작가는 게임 속 공간이 현실과 연결되는 가능성에 호기심을 느끼면서도 100% 실현된 그들을 맞닥뜨리는 것은 깨림칙하다.

두 번째, 벽에 등장한 편지 보관함의 연장선이다. 불쑥 튀어나온 편지 한 장의 내용은 냉동실 한 구석에서 초콜릿을 찾았다는 것. 그 초콜릿은 8년 전 단종된 프랜차이즈 빵집의 초콜릿이다. 단종된 초콜릿은 현실 속 사라진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다. 게임 속 공간과 현실 속 장소는 서로 다른 대상이지만, 이 두 대상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고, 실체를 온전히 확인할 수 없는 기억이라는 지점에서 감정적으로 연결된다.

세 번째, 편지 내용을 실마리로 냉동실 속 초콜릿을 찾는다. 8년 전의 초콜릿을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는 알 수 없다. 오직 찾는 과정만이 나오는 모습은 어딘가를 향하는 두 손 위에 소중하게 올라가 있다.

대상에 대한 호기심은 그리움으로 바뀌었고, 이 두 감정은 대상이 현실에서 실현되기를 갈망하면서도 더 이상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지점에서 강렬해진다. 73.. 75% 이 애매하게 충족되기를 바라는 감정은 작업 속 결말 없는 상태로 표현되며, 그 불완전함을 통해 감정의 모호함이 유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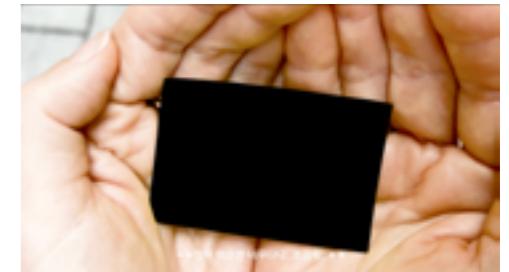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혼합재료, 39.5×61.5cm, 2024



벽에 부딪혔다 광... 뭔가 더 있지 않을까?, 혼합재료, 가변크기, 2024



냉동실 속에 오래된 초콜릿 하나가 남아있더라, 혼합재료, 110×54×125cm, 2024



초콜릿의 맛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 단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3분 31초, 2024

배지영 Bae Jiyeong

sincerely, to you

예전부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늘 어려웠다. 어렸을 땐 편지로라도 조금은 진솔한 마음을 담아보았지만, 성인이 되면서 그런 표현도 점차 드물어졌다. 원래 성격이 그렇다는 이유로,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넘기곤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진심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은 갈망이 늘 자리하고 있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이번 작업은 그러한 소망에서 시작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마음을 물질적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까? 이번 작업은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 세상에는 이미 꽃말과 같은 다양한 상징적 표현이 존재한다. 이는 인간이 오래전부터 비유와 상징을 통해 의미를 담고자 했던 노력의 일부이다. 그러한 기존의 상징 표현과 개인적인 의미를 지닌 소재를 결합하여, 마치 선물을 포장하는 것처럼 텍스처와 색감을 총총이 쌓아 새로운 상징물을 만들고자 했다. 이 과정은 물리적 화면에 소망을 담아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개인의 감정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고자 했으며, 터치 하나하나에 전하고 싶은 진심을 담아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듯이 표현된다.

작품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담고자 한 작은 진심이 관람자에게 다정하게 다가가기를 소망한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잊혀지기 쉬운 소중한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고,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A Sense of Happiness,
mixed media on wood panel, 222×130cm, 2024



charm_h,
acrylic on canvas, 97x145.5cm, 2024

charm_c,
acrylic on canvas, 97x145.5cm, 2024

charm_m,
acrylic on canvas, 97x145.5cm,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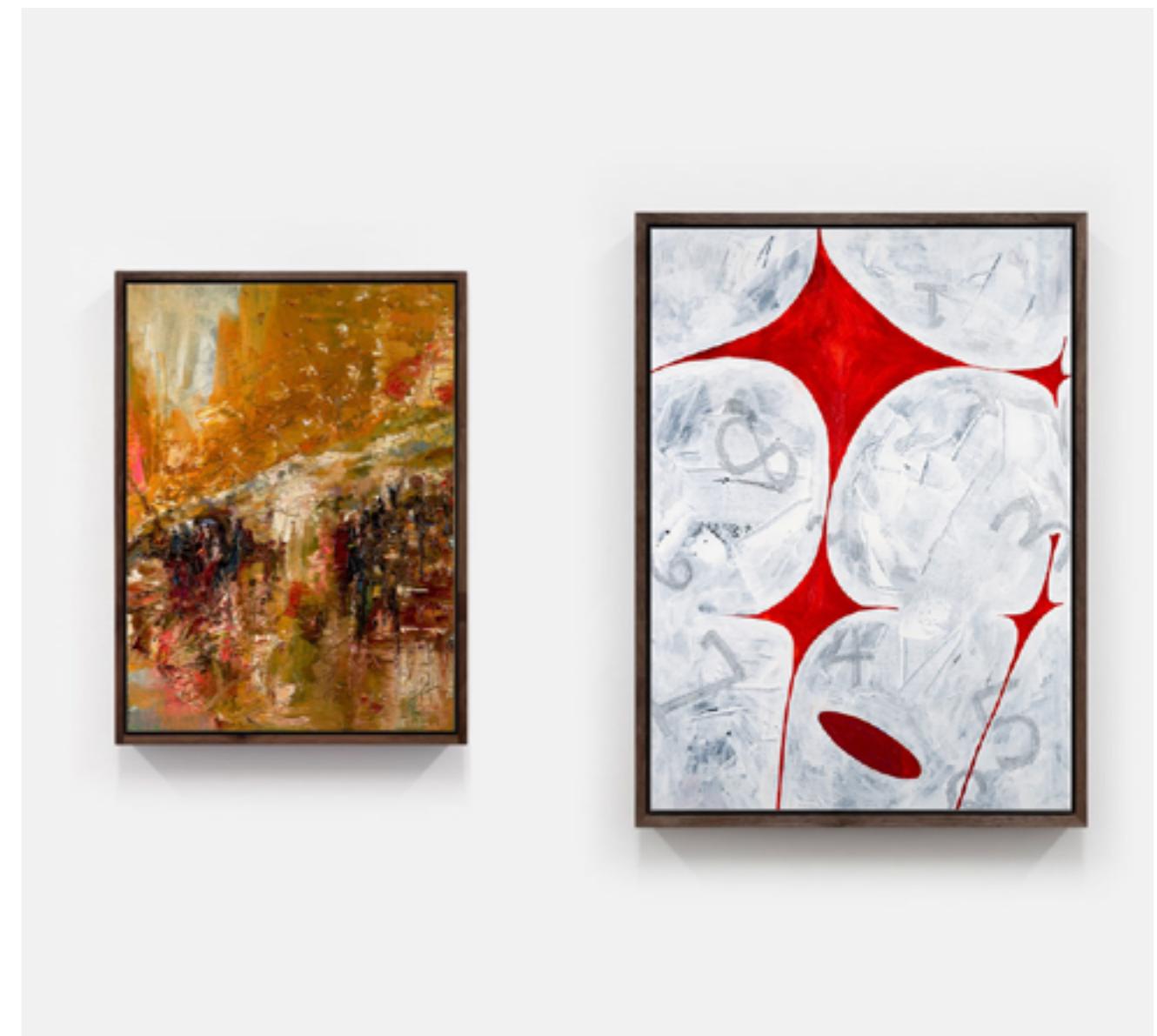
서진영 Fregha

주사위 탑

주사위로 탑을 쌓아본다.
 탑은 흔들리며 위태롭게 서 있다.
 각 주사위는 그저 하나의 면을 보여주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
 첫 번째 주사위가 쌓일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저 눈앞에 놓인 것이 운명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탑은 점점 높아지고,
 그 위에 얹을 주사위의 숫자들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
 어느 면이 위로 향할지, 탑이 무너질지 계속해서 불안감이
 쌓여간다.

탑의 마지막 주사위를 쌓는 순간, 묻는다.
 “이 탑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

그 대답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도 탑은 계속 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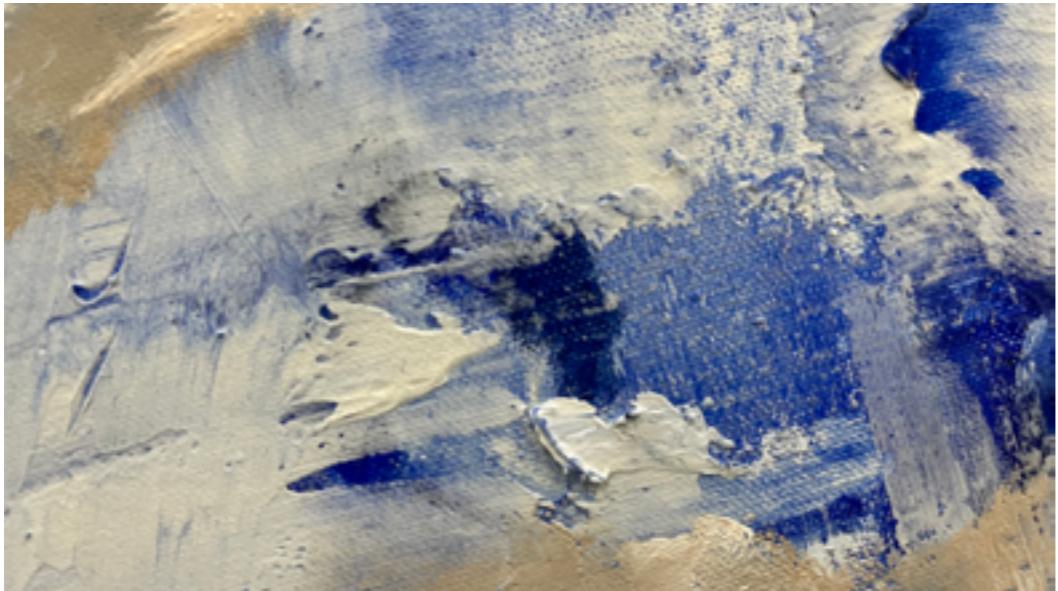


1, 2



3

- 1 **The Wasteland 2**, mixed media, 53×45cm, 2024
2 **Red shot**, mixed media, 63×80cm, 2024
3 **Fly like blue**, mixed media, 45×37cm, 2024
4 **Dice tower(*detail cut)**, mixed media, 145×112cm, 2024
5 **Random**, mixed media, 80×60cm, 2024



4



5

설윤서 Seol Yunseo

새까만 재가 되길

알 수 없는 흔적들과 함께 불타오른다. 그 흔적들은 응어리진
마음속 상처와 잊고 싶은 기억 같은 것들이다. 나의 감정에
솔직해지지 못하고 잊혀진 줄 알았던 얹누른 슬픔은
나도 모르는 사이 가슴속 한 켠에 자리 잡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었고, 그로 인한 내적 변화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작업이 탄생하였다.

작가는 이러한 흔적들을 지우기 위하여 픽션의 인물을
통해 비극을 간접 경험하는 행동을 찾아 나선다. 영화 속
주인공에게 감정 이입하며 동질감을 얻기도, 나의 상황에
대입시켜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을 마주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작가는 이때 흘린 눈물이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 감정을 해소하는 매개체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한번 흘린 눈물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마음을 사색하는
시간을 준다. 마치 쉽게 불씨가 꺼지지 않는 불덩어리처럼
말이다.

작가에게 촛대와 재, 불빛은 감정의 소멸과 재탄생을 나타내는
상징적 이미지이다. 촛농이 되어 녹아내린 자리에, 여전히
나를 비추는 수많은 불빛이 남아 있다. 그 불빛들은 내 곁에서
아련히 아른거리며,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존재들로 자리한다. 소멸된 감정의 잔재 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피어나는 것처럼, 이 불빛들은 나를 지탱해 주는 원동력이자,
지나온 시간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빛이다.

작품을 통하여 관객에게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눈물로
녹아내린 순수한 마음에 행복한 감정으로 다시금 자리하길
바라며, 눈물이 촛농이 되어 녹아내리길, 우리의 곁에 수많은
빛이 비쳐주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Suppress,
oil on canvas, 24×30cm, 2024



The catharsis of tears I,
oil on canvas, 112.1×145.5cm, 2024



The catharsis of tears II,
oil and mixed media on canvas, 116.8×60cm, 2024



환상 동화,
oil on canvas, 100×73cm, 2024



The catharsis of tears III, ceramics, 가변크기, 2024

송수현 Song Suhyun

command + shift + 4

삶은 거룩함으로 조합되지 않는다.

하루를 매우는 것은 지독하리만큼 반복적인 행위이고, 그렇게 쌓인 일상은 다소 피상적이다. 비일상의 순간을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금세 소실의 감각을 털어내고 평범한 하루로 돌아간다. 권태의 자만에 빠져 무력하게 흘려보낼 순간을, 당연함이 선사하는 매혹감에 매료될 의식을 일상의 익명성으로부터 끌어올리는 접근으로 작업을 시작한다. 안주하는 감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움직임은 두 가지 행동 양상을 거쳐 그리기의 방식으로 이어진다.

① 수집된 망원 이미지의 자기검열적 편집

세계의 어제와 같은 오늘이 만들어내는 관성에 종속되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결여된 능력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는 힘이다. 행복하다는 명제를 완성시키는 것은 평범함과 소소함 같은 단어들의 조합으로 쉽게 정의할 수 있지만, 매일 반복되는 시간 속 진정 반짝이는 참된 역동성은 대체 불가능한 시간 속에서 발견되는 무용한 가치이다. 약간의 불편한 불일치는 기억할 만한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평범하게 지나치는 순간 중 잠시 열렸던 감각으로 존재한다. 늘 새로움을 망각하는 고유한 '지금'에 잠식되지 않을 새로운 문으로서 크롬된 망원 이미지는 확장될 외부 세계의 상상을 자극한다.

② 그림 위에 그림 눌러 넣기

일상의 양면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마주할 때 비로소 사변적 사고로 이를 직면하게 된다. 보통의 날이 선사하는 권태와 삶의 연약함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양가적 감정을, 현실의 감각을 촉발하는 배경에 눌러 넣는 행위로 대변한다. 이미 그리기 과정이 완료된 이미지를 또 다른 그림 위에 부착하는 동작은 개인적인 순간과 융합되어 상호작용하는 외부 세계를 감각하려는 반향이자, 일체유심조 사고가 외연하는 사회의 역할에 관한 질문이다.

`(command + shift + 4)`는 주관적인 화면 포착을 수집하고 편집하며 흔적을 남기는 방식을 통해, 관람객의 태도와 시각적 변화의 전환점에 서고자 한다.





IMG_0118 : 감, linen, wood, acrylic, wooden canvas , 17.9×25.8cm, 2024

IMG_1023 : 공사장 그리고 샤워거품, linen, box, resin, acrylic, wooden canvas, 162.2×112.1cm,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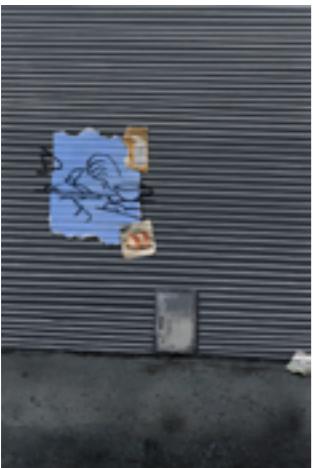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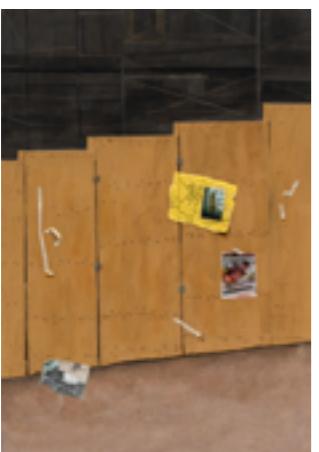
IMG_0307 : 셔터와 식빵 그리고 콘센트, linen, box, wood, paper, acrylic, canvas, 90.9×60.6cm, 2024

IMG_0307 : 셔터와 식빵 그리고 콘센트, mixed media, 90.9×60.6cm, 2024 [detail cut]

IMG_0515 : 횡단보도, polystyrene, acrylic, wooden canvas, 30.0×30.0cm, 2024

IMG_1023 : 공사장 그리고 샤워거품, mixed media, 90.9×60.6cm, 2024 [detail cut]

IMG_0918 : 바지터짐, linen, wood, acrylic, wooden canvas, 27.3×22.0cm, 2024



송유하 Song Yuha

애정의 형태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가슴 한편에 애착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있어서 그 존재는 인형이다. 단순히 선호의 영역이나 가치로는 차마 따질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다. 그런 나를 위해 부모님은 잘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늘 내 가슴 위에 인형을 올려 주셨다. 가슴을 꼭 안아주면 더욱 안정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인형은 부모님의 따뜻한 걱정을 담은 수호신이자 애정 어린 사랑 그 자체가 되었다. 인형은 우리 가족의 연결 고리가 되기도 했다. 아버지가 어머니께 처음으로 선물하신 물건이 인형이었다. 그 인형은 오빠의 첫 번째 장난감이 되었고, 내게로 이어져 지금까지도 방 한편에 머물러 있다. 현재 작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이며, 내가 만드는 인형의 형태적 기반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에게 인형은 어린 시절의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면서 때로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친구였고, 삶과 작업에 녹아들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영감의 원천이다.

수많은 애정을 담은 인형으로 관객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인격을 부여한 인형은 파스텔 색조의 알록달록한 부드러운 색감으로 캔버스에 나타난다. 자신이 생각하는 소중함을 품은 채 각자의 방식으로 소소한 행운과 애정을 전달해 주고 있다.

이 인형들이 단순한 물질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이 되어 감정을 공유하는 오브제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포근함과 따뜻함을 선물하고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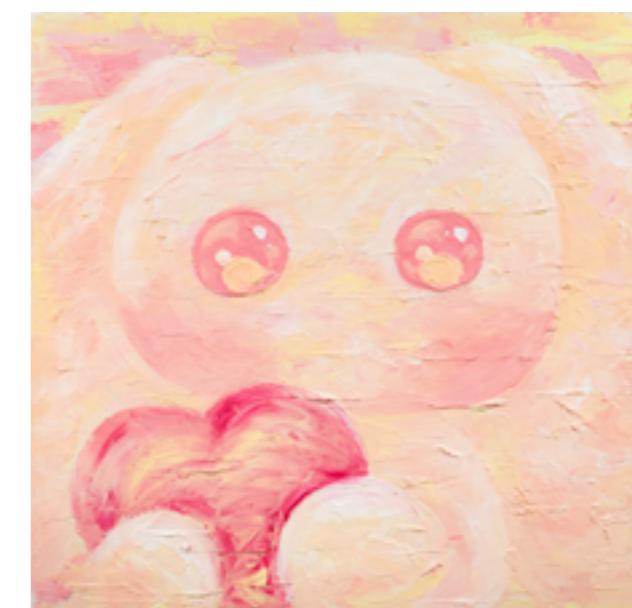
애형,
mixed media, 가변크기, 2024



추억을 담은 꽃,
acrylic on canvas, 27.3×34.8cm, 2024



반짝이는 별,
acrylic on canvas, 65.1×65.1cm, 2024



따뜻한 마음,
acrylic on canvas, 65.1×65.1cm, 2024



소중함을 품다, acrylic on canvas, 97.0×145.5cm, 2024

신혜민 Shin Hyemin

가장자리 유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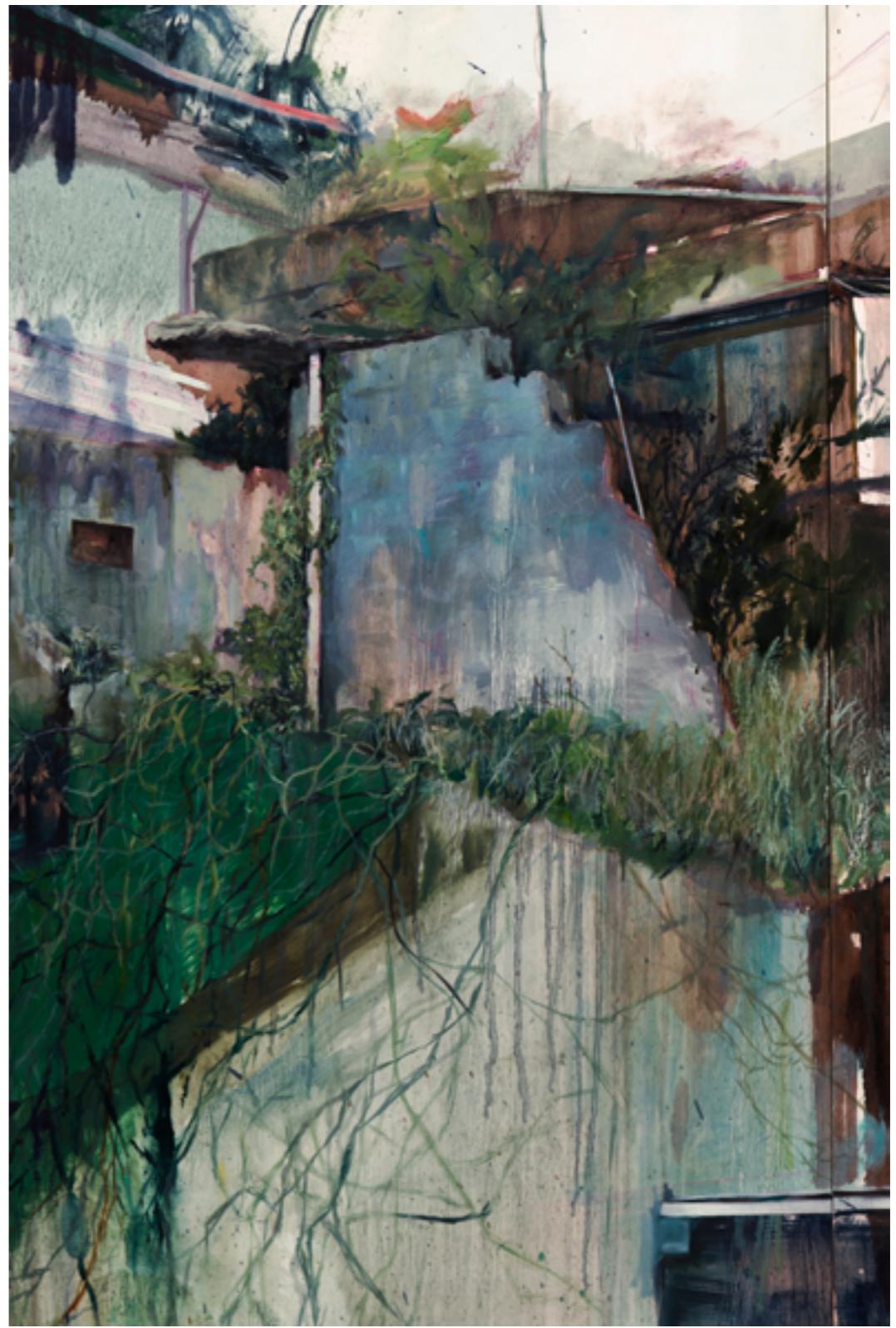
버려진 건물이 자연에 동화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필요가 사라진 건물 중 철거조차 되지 않고 관심 밖으로 밀려난 건물들이 있다. 이러한 건물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녹슬고 부식되어 식물과 이끼로 뒤덮인다. 건물이 비인간적 창조물인 자연에 귀속되는 것인데, 인간의 소유물인 건물은 버려진 순간부터 그 자체로 호흡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나는 큰 행사가 개최된 지역에 살았는데, 행사가 끝난 뒤 높은 건물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그곳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그 행사로 바뀐 것은 기존 건물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간 것 정도였다. 남겨진 건물들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 자연에 의해 본래의 형태를 천천히 잃어갔다. 나는 비로소 그때부터 건물이 하나의 생물이 되어, 자연과 어우러져 유기체적 상황을 만든다는 느낌을 받았다. 얹히고 설친 자연과 건물, 기존의 형태를 잃어가며 생겨나는 곡선, 때로는 필요에 의해 엉성하게 개조된 건물이 보여주는 조화는 유기체적 상황이 충분히 드러난다. 이 형상들은 조경 목적으로의 아이러니한 자연이 아닌 날것 그대로의 자연으로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물감을 비비거나 뿌리고 중력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등 밑의 레이어가 보이거나 섞여 경계가 허물어지는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려 냈는데, 건물이 부식되고 자연으로 덮이는 레이어와 유사하다. 화면 위에서 물감이 만들어내는 유기체적 상황을 느끼며 작업을 진행한다.

남겨진 건물이 녹슬고 부식되며 자연과 어우러져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탐구하고, 회화로 풀어내어 건물이 자연으로 돌아가며 생태계를 이루는 모습을 시각화한다.



부평구 십정동, 나무판넬에 유채, 130.3×162.2cm, 2024



서대문구 현저동, 나무판넬에 유채, 162.2×260.6cm, 2024



서대문구 현저동, 나무판넬에 유채, 130.3×162.2cm, 2024

안현진 An Hyeonjin

도시의 낮이 지고 밤이 오면 우린 함께 춤을 춰요

풀이 무성히 자란 땅 가까이 얼굴을 대고 마치 작은 벌레가 된 듯 풀들을 바라보면 내가 생각 없이 거닐던 자리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연약해 보이던 풀들이 마치 나무처럼, 작은 모래알이 돌멩이처럼 느껴지는 순간 이곳엔 이들만의 시간이 흐른다. 가끔은 그 자유로운 세계에 속하고 싶다.

나의 세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이렇게 사는 삶이 최선의 삶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 모순 속에서 더 큰 불안감을 느낀다. 사람마다 각자의 시간과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기에 우린 결국 주류라는 이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나의 가치를 하염없이 비교하고 깎아내리던 순간,
보이지 않는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려 나를 잊어가던 그때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나를 뒤덮은 이 모순 속에서
그 기준과 시간을 넘어선 자유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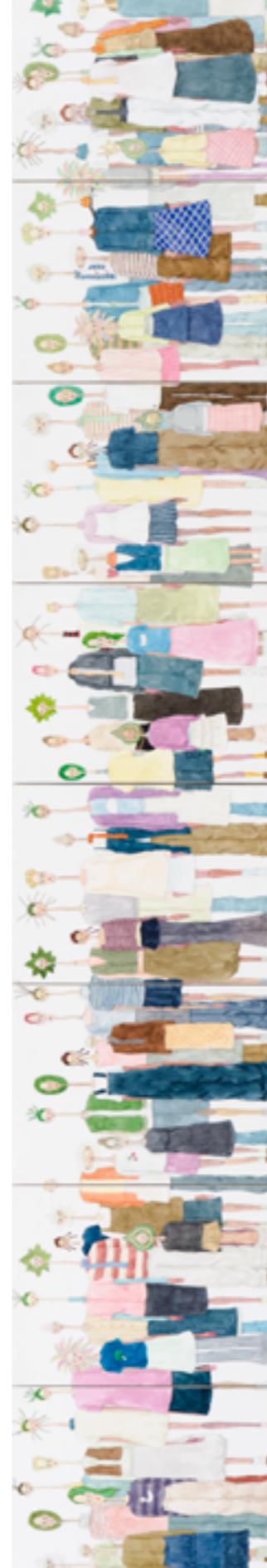
이름 불리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잡초를 본다.
주류이지 않아도, 비주류라도 당당히 살아갈 용기를 가졌다
점이 각자 다른 모습과 속도로 자라지만, 서로 뿌리와 몸을
맞대며 살아간다는 점이 그럼에도 특정한 주류 없이 그저
서로를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점이 그런 것들이 내가 그들이
되고 싶게 한다.

내 세계 안에선 그들이 주류다.

누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들은 춤을 추듯 자유로이
존재한다. 주인공도, 중심도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어우러지며 스스로의 자리에서 당당히.

이 세계에서 비주류로 남는다는 것은 결코 고독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연결을 위한 또 다른 방식일 뿐.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히 나로 존재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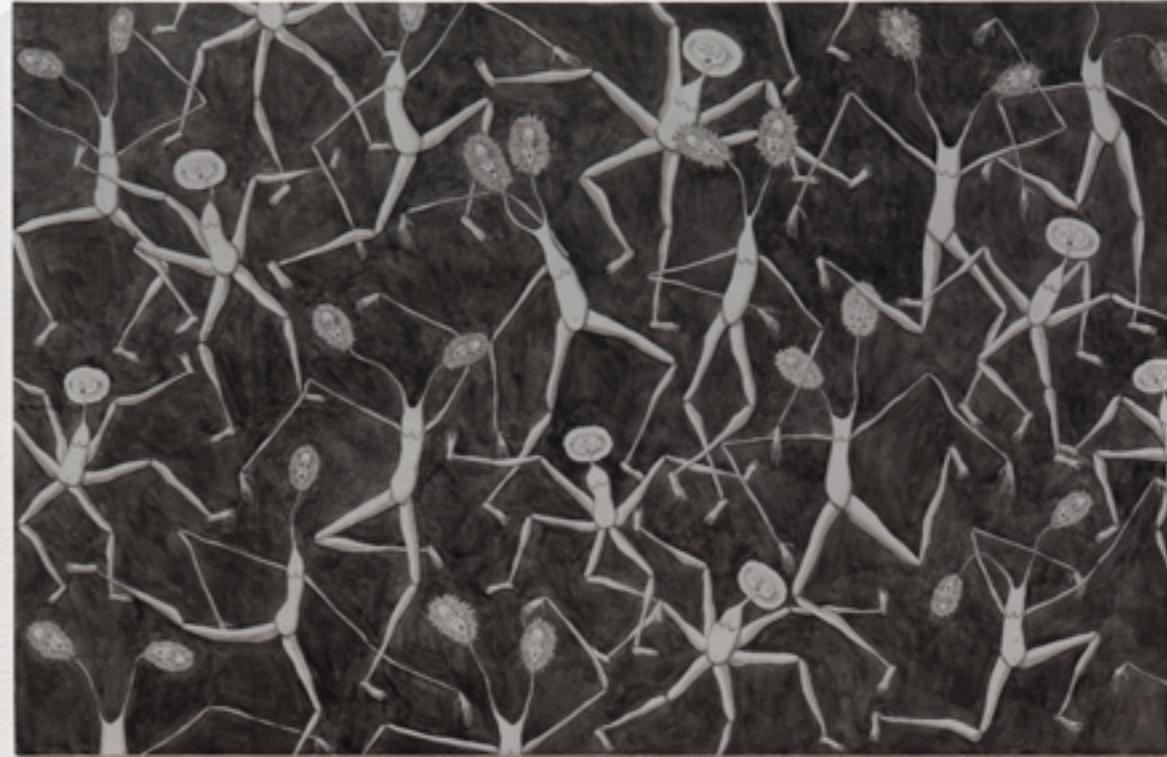
나를 찾아봐,
종이판넬에 수채, 33.4×193.6cm, 2024



WeEds-!, 종이판넬에 수채, 162.2×130.3cm, 2024



잎이 맞닿는 순간 춤추자!,
종이판넬에 과슈, 162.2×130.3cm, 2024



한 밤의 춤, 종이판넬에 수채, 65.1×100cm, 2024



여기에 뭔가 있어, 판넬에 혼합매체, 22.3×27.5cm, 2024

오예지 Oh Yeji



나는 매일 집을 떠난다

나는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였다. 이 경험에서 비롯된 이질적인 문화와 정체성은 창작의 자양분이다.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마음으로 자연스레 중심보다는 주변부, 소외되는 것들에 집중한 작업을 전개해 왔다. 이번 작업에서는 문화적 차이로 나에게 사라진 한 시간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경도 15도를 갈 때마다 한 시간이 추가되는 시간의 법칙을 따른다. 그렇지만 모든 나라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경도에 의해서만 시간을 정하지는 않는다. 이는 국가나 지형적 특성에 따라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존재한다. 중국의 서쪽과 동쪽은 실제로 4시간 이상의 시차를 가지지만 편의를 위해 전국을 베이징 시각 UTC+8로 통일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지리적 시차가 존재함에도 동일한 시간대를 공유한다.

날마다 반복되는 삶의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 개념 안에서도 개별적 경험에 따라 다르게 흘러간다. 나는 2000년 8월 23일 23:16에 중국에서 태어났으며, 열 살이 되던 해 시차를 고려하여 8월 24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험이 있다. 사라진 한 시간은 나에게 무의미함, 허무함, 공허함과 같은 감정을 유발하였으며, 동시에 나의 존재 근거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과 한국,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나는 황해 속을 유영한다.

〈나는 매일 집을 떠난다〉는 이와 같은 경험을 담은 전시이다. 관객은 배의 조타실을 형상화한 공간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통로에 놓인 기록과 사물들을 보며 나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이 공간에서 관객은 표준화된 시계 시간으로 유지되는 일상에 함몰된 의식을 깨우고, 과거와 현재, 시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허하면서도 충만한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며,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에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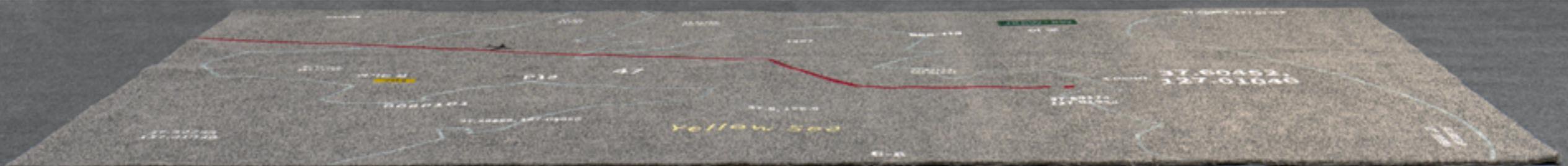
황해를 떠다니는 말 黃馬 話馬, 웹사이트, 2021



Made in china, PVC, 옷, 냇줄, 홍등, 53×66cm, 2024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캐리어에 혼합매체, 76×61cm, 2023



위 - 그리고 네 개의 경계선, 판넬에 혼합재료, 336.3×162.2cm, 2024
아래 - 경계인을 위한 지도, 카페트에 아크릴, 336.3×162.2cm, 2024

유효린 Yoo Hyorin

Just Keep Dra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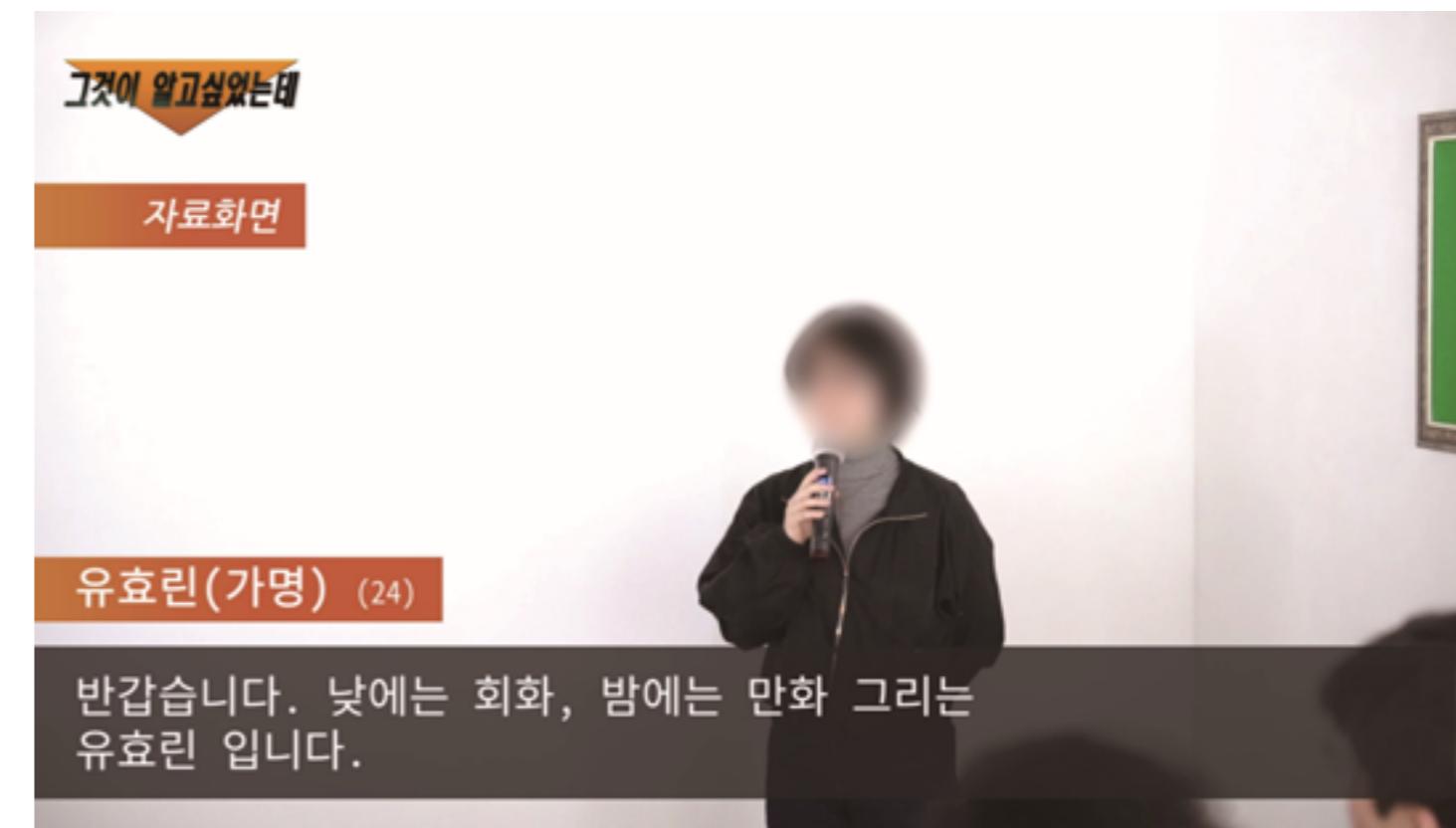
“낮에는 회화, 밤에는 만화하는 유효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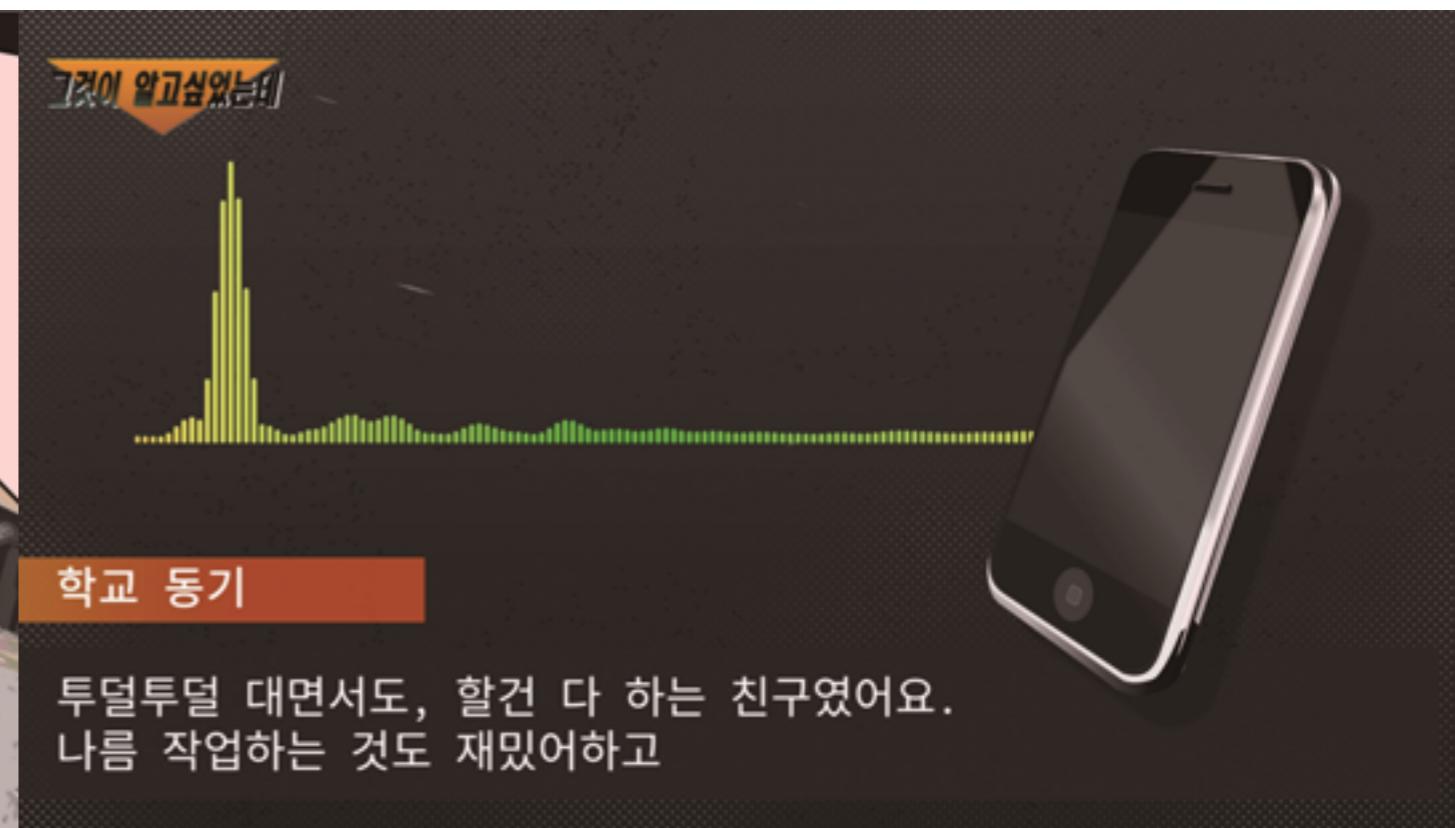
“그녀의 이중생활을 쫓기 위해, 저희 제작진이 출동했습니다.”

심각한 내용의 범죄, 재난만을 담는 시사 프로그램의 양식을 차용해 작가(을 빙자한 가상 인물)의 일상을 파헤친다. 이에 따라 발생한 아이러니와 재치를 통해 관객에게 웃음을 주는 동시에, 두 전공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물과 그를 둘러싼 세상에 이목을 집중할 수 있다.

회화과 졸업 전시이니만큼, 학교에서 보낸 4년간의 여정을 주제로 담고 있다. 작가는 1학기 개인전 프로젝트에선 대학 생활의 시작점인 '입시'를 테마로 삼았다. 고로, 학교생활하면서 가장 큰 뭈을 차지한 동시에 학우들 사이에서 유독 드러나는 본인만의 개성인 '만화 그리는 회화과 학생'에 대한 주제로 작업을 하며, 학교생활을 마무리하기 희망했다.

무엇보다도, 위 작품은 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계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불안에 떨 필요 없다는 응원을 전한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 있었던 작가의 마지막 학교생활이 그 증거이다.
우스꽝스럽지만 그렇기에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던 그의 삶도 계속 지켜봐 주길 바란다.





이민진 Lee Minjin

To. The things in our periphery

나는 도시의 소외된 생물이나 개인적으로 감각하는 애정의
부재에서 이미지를 가져온다. 집을 잊고 떠도는 생물들,
변화한 것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나약함이나 외로움,
미래에 대한 의구심과 같은 경험의 파편을 토대로 드로잉을
이어간다. 그 순간을 마주할 때 경험하는 멜랑꼴리는 부정적인
자극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따금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믿게 된다. 한 걸음 뒤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무리 밖의 것들은 가볍게만 느껴져 자국을 남기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 자국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나는 마치 패턴을 직조하는 것처럼 물질을 교차하고 엮거나,
때로는 문지르고 새기는 행위로 회화를 제작한다.

작업은 재료의 물성과 화면 구성의 관계성에 대한 실험에서
시작한다. 드로잉에 의상 제작에 쓰이는 소재나 철망과 같은
비 미술 재료를 콜라주하거나 아크릴 미디엄을 쌓아 올린다.
이 과정을 통해 각 형상은 다른 미디엄으로 콜라주 되거나 펴
발라져 층이 생기고, 그 아래의 요소를 관찰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두 손의 감각을 따라 표상들이 탈락하거나
보존되고, 우연으로 결합하며 이미지가 완성된다. 나는 그곳
아래 원본을 숨겨두고, 이 시대에서 내가 외부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무엇이 소멸하고 탄생하는지
기록한다. 반복되는 무수한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며, 그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나의 작은 불가사리, epoxy, acrylic on panel, 25×25cm, 2023



별, 선물, 집, mixed media on panel, 20×28.5cm, 2024



Our mess serenade, epoxy, gliter, acrylic on panel, 60.6×72.7cm, 2023



Root route root, spray, acrylic on panel, 324.4×97cm, 2024



Putty cotty, epoxy, spray, acrylic on canvas, 80.3×116.8cm, 2024

이 세환 Lee Sehwan

세트 번호 20711

내 작업의 행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상황은 적극적으로 예술적 충동이 표출되기 어렵게 만든다. 평가가 작업 자체에 대한 불안을 만들고 창작 활동을 주저하게 한다. 대학에서 교육받는 기간동안 불안은 커지고 의지를 잃어갔으며 예술적 충동을 영원히 상실하게 될 두려움을 느꼈다. 만든다는 행위에서 오는 감정이 부정적인 것으로 굳어지기 전에 회복을 위해 이 작업을 시작했다. 어렸을 적부터 만든 레고 장난감은 나의 예술적 충동의 기원이다. 작은 요소를 조립해서 특정한 대상을 이루는 행위는 창작의 욕구를 일으키고 의지를 견고하게 만들었다.

창작 욕구를 느끼게 한 레고의 방식을 패러디해 모형을 제작했다. 나에게 레고의 레플리카처럼 소유할 수 없는 대상은 항만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운반장비다. 본능적으로 이끌린 이것을 레플리카로 삼아 작은 요소부터 설계해서 조립까지 직접 과정을 거쳤다.

레고와 종장비로 보여주는 취향이 담긴 모형으로 충동적 행위를 시도한다. 이것은 예술을 하기 위한 의지를 회복하며 예술적 충동 자체를 전시장에 두어 주저하던 모습을 드러내 극복하고자 한다.



Empty Container Handler, foam board, fomex, wood, hot-melt adhesive, 가변 크기, 2023-2024



이송희 Lee Songhee

마무리의 조각

예술가들이 작업을 그만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그들이 나약해서만은 아니다. 사회적 기준, 돈, 시간, 안정감을 좋아 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 또한 이번이 마지막 작업이라는 생각을 한다. 오래전부터 마무리할 준비를 계속해 왔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끝이 가까워질수록 창작에 대한 욕구는 더욱 확실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모든 예술가가 느끼는 창작을 향한 끝없는 미련과, 그럼에도 뒤따르는 회의를 솔직한 개인의 시선으로 담아낸다.

마지막으로 예술에 대한 나의 로망을 이루는 〈헛로망〉
예술가들의 말버릇을 수집하고 암기하는 〈일원이 되는 법〉
남들의 지루한 전시 설명문을 수정하는 〈_를 위한 전시설명문〉
내가 할 선택을 한 번 겪은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예술을 그만둔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꿈과 고민의 네 조각을 여기에 남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헛로망,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024



헛로망,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024



일원이 되는 법,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024

—를 위한 전시설명문,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024

이전 시기의 조각에서 확인되는 공공성이 대량 생활을 보여주고자 한 점화들은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사이 나무판과 물성을 뒤구하는 조각가로 주목받았다. 1990년대 후반 모던시스 군도인 에스컬레이스튜디오 프로그램, 낸브리 스튜디오(뉴욕), 아트오아이 갤러리(서울) 등을 통해 설치된 시에 참여한 조각가들 사이에서 시율, 모브릭, 거예고 같은 조형언어의 협력을 도모하였다. 한수호록, 모서, 박노트, 서산드로임, 오브제 등이 혼합하여 구성된 혁신적 조각에서 출발하여 확장된 조형언어를 살펴보는 동시에 평소와 시간과 관련한 틈의 형식과 공간미술, 커리너리 아트와의 접점을 만날 수 있다. 이는 조각가로서의 전통과 그에 따른 혁신을 대변하는 조각가로 공공성이 대한 지향점을 보여줄 것이다. 이번 전시의 제목이 된 우려는 사람을 보낸 사람의 이름이다. 어린 바이올리니스트 릭 애슬리(Rick Astley)의 이름과 trolling의 협상어를 합쳐서야 영광에서 유행된 신스팝 음악 «Never Gonna Give You Up»의 가사 한 구절이 어울리게 자동 번역된 한국어 문장을 지운다. 흥미진진한 이미지 재생산에도 개입하는 이런 면면적 신호의 모티브에서, 만약 대상과 반복 과정 모두에게 변화가 있는 양자 사이의 유통성이 발견된다.

이 작품은 노를 넣어서 묵직한 무언가를
썩은 시선 등 묵거지 침조 대상의 내용성이,
돌연 시
질감이
터 캐리
트 카에
제 카드
트와 물
과 본관
과 차와
자원과
설정은 한
인 조각회
제작과 회주에서 맛을 거 예술(People) 사이의 관계자
가와 적인, 또 작품과 작업 사이에는 저마다 개인적인 원천
이 불거운 한 어떤 연결성이 작 통하고 있다. 그리고는 사람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그래서, 양 사적으로 도배와 흥경주
동풀렉스(memeplex)처럼 찾고 한다. 요컨대 흥주는

제2전시실은 '사물의 물질성에서 발굴한 순화적 가치와 빙그리는 작가의 탄도를 보여준다. 점화들이 시율을 낸다는 시선에서는 조각에 대한 조형적 관심과 동시에 시율 자체에 내재된 힘과 생기에 대한 민족, 나아가 생태에 대한 시 시 유를 수 있다. 한류를 통한 산수 기법을 통해 이 아 주류 드레스는 대체로 모션 프로젝션(2013-2021) 는 인류의 공무자와 행정권을 표지하고, 언급에게 전 오염을 물들여 농 가을 축전시키는 비 인간 사용들을 대표하는 한 시에 한 물건에 대한 특별한 표지, 예술을 통해 한류를 통해 국경과 해안을 경계를 부여시킬로 영광하고는 수집해온다. 이와 같은 행위 하는 생태계를 대변하고, 그리고 경계를 지어 연출된 공유 표지로 예술을 수령하는 힘을 대한 문제로써 계획을 수령하기 위해 표지로 경영하는 힘에 대한 인식과 같다. 놀고 놀고 이동하는 주제가 민족과 각 주제인 날개를 험난한, 불길의 날개인 사람의 손톱과 다른 종종은 중요자로는 경계에 있는 홍보선을 활용하는 듯

이수민 Lee Soomin

수평비행 꿈꾸기

하루를 여는 건 심장을 아리는 알람 소리.

영원할 것 같던 침묵을 깨뜨린다.

일상과 일이 빛어낸 소음들.

오늘의 할 일을 바라본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성취하려는 욕구는 이 땅 위
존재의 숙명처럼 느껴진다.

완전해질 수 없다는 무력감, 내 왜소한 존재를 절대적인
영역으로 이끌고 싶다는 소망은 나만의 것이 아닐 것이다.

파란 하늘이 한없이 펼쳐진다. 알바트로스는 하늘을 믿고
날개를 펼친다. 보드라운 날개로 태평양을 가로지르고,
온몸으로 바람을 느낀다. 나와 그 새의 닮은 점이라곤 따듯한
온기뿐이다.

〈수평비행 꿈꾸기〉에서 나는 알바트로스의 몸짓을 흉내 내며
그 삶을 꿈꾼다. 땅에서 벗어나길 염원하며, 하늘을 향해
풀쩍인다.

바람을 느끼고, 내가 갇힌 몸뚱이를 느낀다. 날지 못해 공기를
휘적거리는 사람의 몸짓은 우습다. 작가는 우리가 현실적
문제에 봉착할 때, 하늘의 질서와 새가 되고자 한 사람의
몸짓을 떠올리며 그 불안을 해소하길 희망한다.





수평비행 꿈꾸기,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5분 23초, 2024



이유진 Lee Yujin

(잠시 정차합니다)

생동하는 도시의 한구석에서 매일 새로운 가림벽이 세워진다.
머지않아 그 자리에 새로운 빌딩이나 아파트가 들어서겠지만,
그 과정은 잠시 감춰진다. 이는 단순히 공사장을 가리는
역할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매체가 되어 무언가를 감추는
동시에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가림벽은 일종의 외부
간판이 되며, 그에 부착된 전단지, 티끌 그리고 남은 잔해는
공사가 끝나고 가림벽이 걷히는 순간까지 그 자리에 남겨진다.
이러한 가림벽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살아 숨쉬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관계를 맺는 존재들의 일시성과 그들이
남기는 흔적에 주목한다.

작업은 임시 구조물인 가림벽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어느 순간
세워졌다가 쉽게 사라지는 특징을 지닌 가림벽은 사회 속에서
특정 장소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개인의 자취와 닮아 있다.
나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쉬이 휘발되는 존재들을 회화를
통해 변형하고 해체한다. 사실적 묘사와 임파스토, 드로잉을
결합하여 재현과 추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정을 남긴다. 이는
생성과 소멸의 흐름을 하나의 화면에 흔적으로 공존하게 한다.

또한 각각의 작업에서 가림벽을 조명하는 거리를 다르게
배치하는데,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변화를 통해 주목받지
못했던 대상의 자취를 찾아내려 한다. 이는 단순한 시각적
표현을 넘어, 보는 이에게 지나쳤던 순간들과 그 속에서
발견되는 흔적으로 존재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보이는 것
너머의 내면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일상의 흔적들은 우리 삶을
재조명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에, oil on canvas, 194×260.6cm, 2024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에, oil on canvas, 130.3×240.9cm, 2024



이주현 Lee Jueheoun

요지의 요지

나의 작업은 잘 정돈되고 다듬어진 상품과 화려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숨겨진 노동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이들은 거대하게 동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감추어진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들의 행위는 너무나 사소하고도 일상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가려진다. 나는 퍼포먼스와 대화록을 통해 작가가 독창적이고 유일무이한 작업을 창조해 낸다는 측면에서 한발 물러나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을 드러내고, 위치를 전환하고자 한다. 전시장에 사람이 많이 오면 올수록, 즉 작가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관람객을 위한 이쑤시개를 만들어야 하는 퍼포머의 노동의 강도는 높아지고 이쑤시개가 '선물'을 통해 계속 없어지기에 퍼포머가 존재해야만 미술가의 작업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골에서 사셨던 아버지의 영향 탓에 부모님은 주말마다 밭에 나가 채소와 곡식을 농사지으신다. 그래서인지 우리 집 식탁은 손길이 가득하다. 맥주콩을 농사짓고, 맥주콩으로 맥주를 만든 후 맥주를 쑤어 된장을 만들고 비로소 된장찌개가 완성된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할지 모르는 된장찌개가 식탁에 올라오기까지는 참 많은 애정과 들봄의 시간이 필요하다. 어렸을 적부터 가공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엿보는 건 나에게는 익숙한 일이었다. 그 때문에, 늘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과정을 신비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존재한 것이다. 그에 더해, 아티스트 스튜디오에서 공부하며 관찰한, 작가가 아닌 다른 이에 의해 작품이나 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전시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간접적 만남의 경험이 더해져 예술작품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 탐구한다. 퍼포머가 정성스럽게 제작하는 이쑤시개는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예술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쓸모없어 보이고 효용성을 가지지 않는 것에 가까워 보인다. 나는 나의 작업에서 이쑤시개가 존재해야만 하는 의미와 기능을 부여하고 전시장을 마치 명품관을 연상케하는 방식으로 무목적성의 목적성을 과장한다.

작업의 과정에서 마주한 사람들과 사소하고 개인적이며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하여 맷는 관계 맷음은 세상과의 소통으로 작용하고, 일상적 재현을 토대로 한 퍼포먼스와 어우러져 전시장에서 작은 균열을 만들어낸다. 그 균열은 그들의 미시 서사를 거대담론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작업의 본질이자, 보잘것없고 하찮다고 생각되는 사물을 통해 잊힌 하부구조와 지금 여기를 선형적으로 운동하며 바라볼 수 있기는 계기를 촉발시킨다.





요지의 요지, 퍼포먼스, 2024

이채령 Lee Chaeryeong

납작한 집의 불청객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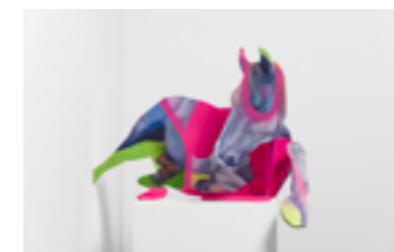
디지털 공간과 공간 속 존재들은 디지털 체계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며 작가의 마음을 자극한다. 작가는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이 존재들을 시각을 통해 감지한다. 작가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수집, 저장하고 더 나아가 영원하게 존재하길 바라는 현실의 순간을 촬영해 디지털 체계 속으로 편입시키기도 하며 디지털 공간과의 교류를 끊임없이 시도한다.

다만 현실은 가상적인 존재가 되는 동시에 물리적 질량이 사라진 채 허상이 되고 편집의 과정에서 앵글을 벗어나는 영역은 탈락한다. 질량이 사라진 채 일부가 탈락되어 재현된 현실은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된다.

작가는 불가피한 탈락들과 함께 왜곡되어버린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 불완전한 형태의 입체 조형물을 제작한다. 디지털 공간에 재현된 현실을 다시 물리적 현실 공간으로 끌어오고 MDF를 이용한 납작한 조형물들 속에 끌어온 현실을 다시 재현한다.

이러한 작가의 작업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말'은 현실에 존재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존재인 동시에 특정한 장소를 벗어나면 생뚱맞은 존재가 되며 말의 존재를 감각하는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감상을 불러일으킨다.

작가가 재현한 공간에 존재하게 된 '말'은 작가와 동일시되며 현실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디지털 공간에 정신적으로 몰입하며 두 영역 사이에서 허우적대는 작가의 입장을 드러낸다.



납작한 집의 불청객 말, oil on MDF, 96×26×64cm, 2024



슈베르트를 위한 삼중주 1, oil on MDF, 113×78×77cm, 2024



슈베르트를 위한 삼중주 2,
oil on MDF, 46×143×71cm, 2024



납작한 집의 불청객 말, single channel video, 2024

이현아 Lee Hyuna

오해를 복제하기 주의를 기울여서 계속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는 감각은 어쩌면 오해를 정교하게 조각해 가는 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서 새로운 오해를 만들어가고 있을까? 상대방의 말과 표정, 신체의 움직임을 읽어내며 진정한 소통을 이루고 있다고 믿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미세한 유격이 존재한다.

나는 복제 기술을 통해 신체의 변형된 이미지를 조각과 설치로 재구성한다. 재료와 행위가 관계하며 변화하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사유한다. 복제는 원본을 정확히 재현하려는 시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틈이 발생한다. 이 틈은 복제의 본질과 한계를 드러내는 모순적 특징이다. 원본과 닮았지만 미묘하게 어긋나는 그 틈은 마치 인간 사이의 소통에서 피할 수 없이 발생하는 오해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언어와 신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어긋남과 왜곡은 결코 완벽히 메워지지 않는다. 이 틈은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며 이해의 한계를 자각하게 한다.

나는 이 한계를 미워하지 않고 탐구한다. 틈과 오차, 유격과 오해, 그리고 그 불완전함에 매력을 느낀다. 재료의 가변성과 역동성을 관찰하며 재료가 일시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놓이는 그 순간들을 포착해 완성의 형태로 끌어낸다. 과정 중 나타나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모습들이야말로 나에게는 작업의 목적인 것이다.

더듬으며 내가 떠나온 것들을 생각한다. 이제까지 나는 무엇이 되고자 떠나기를 반복했지만 사실 그 떠남조차 되지 못한 나를 기다리는 행위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언제까지 오지 않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기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 세상에서 내가 온전히 이해되길 기대하는 일도 어쩌면 끊임없이 어긋나는 일일지도 모른다. 이제 더 이상 어디론가 갈 필요도 다른 무언가가 될 필요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지키며 살아가고 싶다. 내가 지키려는 이 자리와 순간들은 단순히 완성을 기다리는 예비 상태가 아니다. 이곳에서 나는 오해와 유격을 사랑한다. 그리하여 나는 이해되지 않는 채로 비로소 자유로히 존재한다.

열손가락,
석고붕대, 뭇, 9×89×9cm, 2024



매일 두개씩, 두번씩, 두알씩,
유토, 시바톨레진, 10×27×12.5cm 각 6.5×5.5×4.5cm, 7.5×5.5×4cm, 2024



열손끝, 라텍스, 석고, 각 $1 \times 2 \times 1.5\text{cm}$, $1.3 \times 3 \times 2.6\text{cm}$, 2024



바다가 그리운 사람의 발, 석고, 모래, $6.5 \times 10 \times 17.5\text{cm}$, $6 \times 11 \times 12\text{cm}$,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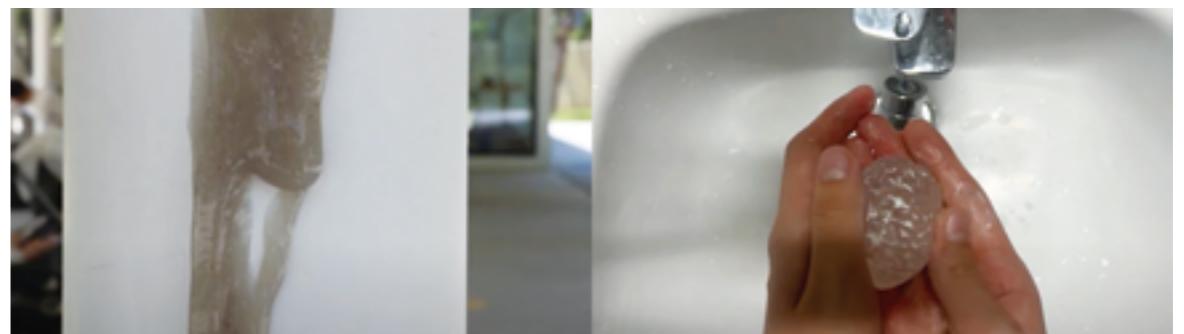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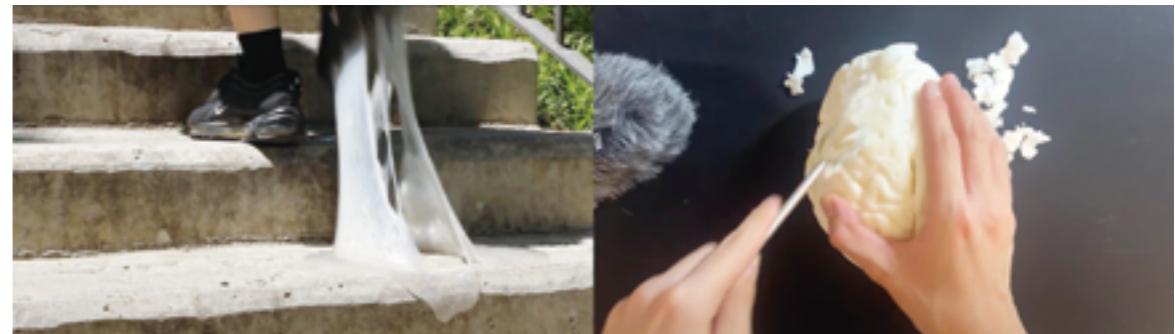
장은수 Jahng Eunsu

Beyond ()

작가는 자신이 믿고 살았던 '이상'이자 현실이, 비로소 '이상일 뿐' 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깨달음은 작가를 무력하게 하는 동시에 해방감을 느끼게 하였다. 그럼에도 이상과는 너무나 달랐던 현실이었기에, 계속해서 다시금 꿈을 꾸본다.

한 공간에서 상상과 환상에 입각하여 희망을 발견해 보기도, 대상의 표면에서 대상의 반대편에 속하는 가상공간의 안쪽을 상상해보기도 한다. 존재하는 현실 속, 규정된 한계의 '바깥'에 위치하는 공간에 의미를 부여해본다. 이렇듯 작가는 현실과 이상의 경계를 안다 갔다 하는 행위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일말의 희망을 찾으려는 발버둥을 친다.

작가는 기존에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작업을 풀어나갔다. 정신적 초점이 오직 '나'=내부였다면, 이제는 '나'의 이야기와 더불어 세상과의 소통을 하고자 한다. 갇혀있던 자신만의 세상에서 나와, 마주한 현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을 겪지만 이 역시, 삶에서 분명히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를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해답을 찾고자 노력한다.





Beyond (), 유화, 테이프, 53.0×45.5cm, 2024



녹아 내리다, 비누, 가변크기, 2024



Beyond (), 디지털 프린트, 42×118.8cm, 2024

전효빈 Jeon Hyobin

무한부활, 점프!

작가는 가상의 윤곽을 회화에 담는다.

이미지로 초대된 존재는 감각의 내재면을 무한히 형성한다.

언제든 대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것들은 극한의 고독 상태로 회귀하지 않으려 이미지에 열심히 부착된 채 부유한다.

게임은 대표적인 가상에서 일궈진 정교한 세계이다.

무조건적인 룰이 존재하는 생태계로부터 추출된 객체는

화면 안에서 재배치된다. 메뉴얼에서 벗어나 엉뚱한 곳에

놓이며 해방된 것들은 자연스레 새로운 내러티브를 형성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간다. 무한히 부활하는 세계 속 신체 수용

감각을 뛰어넘는 미술적 경험이 일어나는 허구의 공간을

재감각하게 한다.

한 번의 실수도 곧장 흔적으로 남게 되는 세계로부터 도망쳐

어떤 짓을 벌여도 용인되는 곳으로 몸을 숨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캐릭터는 반대의 성질인 나에게

조종당한다. 이 사실에 아이러니를 느끼며 게임의 객체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본 인간의 형상을 겹치게 배치하여

기묘한 게임의 순간을 얼리듯 담아내었다.



내가 보는 게 진짜라면,
mixed media on panel, 53x72.7cm, 2024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내가 되고, 우린 서로가 돼,
oil and cold wax on canvas, 각 72×156.5cm, 2024



smurf puff, oil and cold wax on canvas, 24.2×33.4cm, 2024

정다빈 Jung Dab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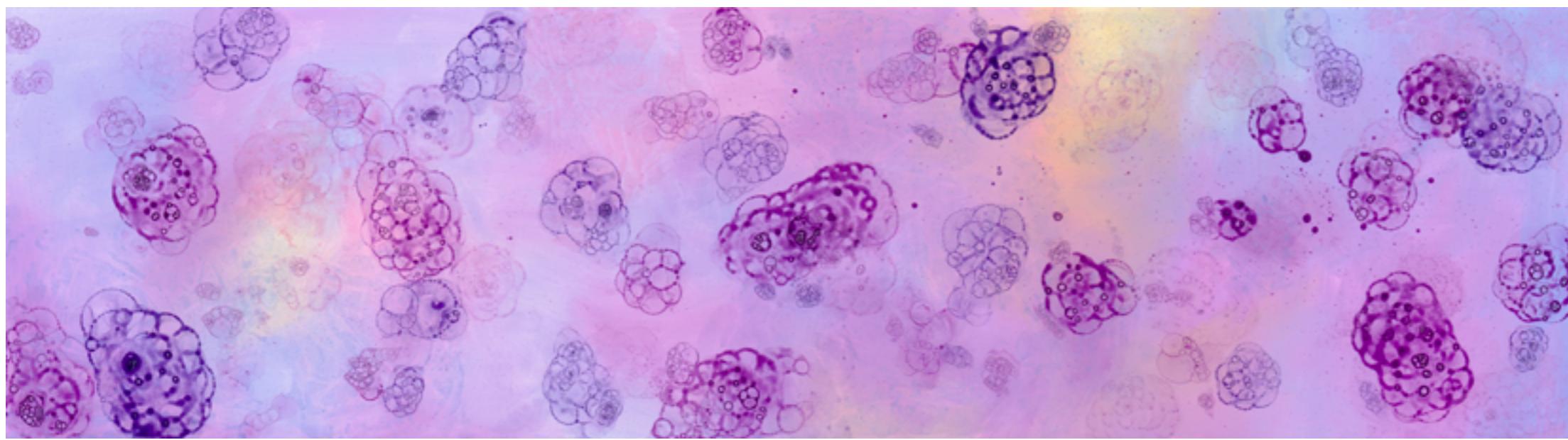
Choppy wavey Dreams

모두에겐 꿈이 있다. 꿈은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는 다른 상태이다. 꿈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으로 느껴진다. 반짝거리는 이상과 상상으로 꽁꽁 싸맨 꿈을 건들이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하면서 사람들은 나와 꿈 사이에 더 많은 층을 스스로 쌓는다. 본질적으로 바라던 이상과 멀어지게 되면서 점점 허상적이고 일렁이는 꿈을 바라만 보는 나를 마주하는 순간을 겪는다. 꿈이라는 것은 일렁인다. 불분명하며 손에 잡히지 않을 듯이 떠다닌다. 그러나 손에 닿는 순간 터져버린다. 닿지 않은 것이기에 꿈은 꿈으로써 존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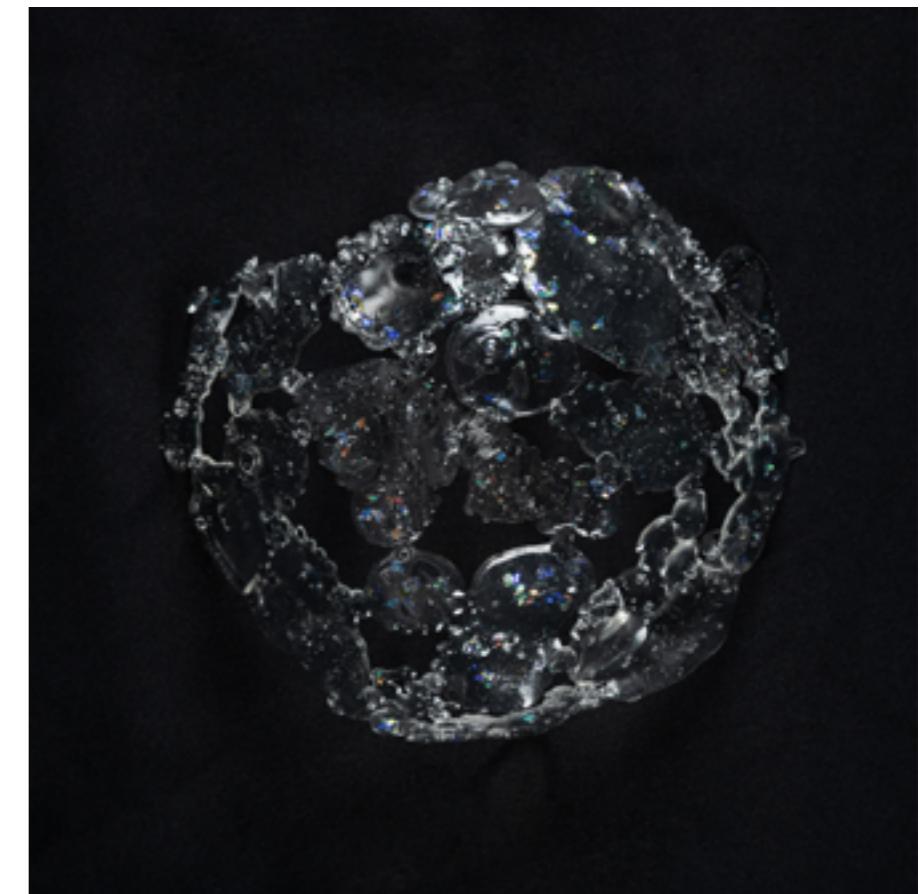
사회는 우리에게 이상적인 이미지를 끊임없이 주입하지만, 그 이미지들은 실제로는 공허한 허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 허상에 이끌리며 이상을 충족시키려 애쓰지만, 결국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곤 한다.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공허와 결핍은 곧 무기력과 회피의 태도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조금씩이나마 변화하고 움직인다. 바라던 순간에 도달했을 때에는 닿지 못했을 때의 자신과 멀어지며 또 다른 이상을 다시 만들고, 살아간다. 우리는 영원히 꿈을 만들고, 죽고, 좌절하고, 터뜨린다. 그리고 그 순간들은 차곡차곡 쌓여 '나'를 만든다.



untitled, 종이에 스템프, 10×10cm, 2024



Choppy wavey, 캔버스에 아크릴, 50×180cm, 2024



Dreams, 레진, 30×30×30cm, 2024

조은서 Cho Eunseo

향수의 잔상

작가는 노스탈지어로서 상상하는 자연의 잔상을 화폭에 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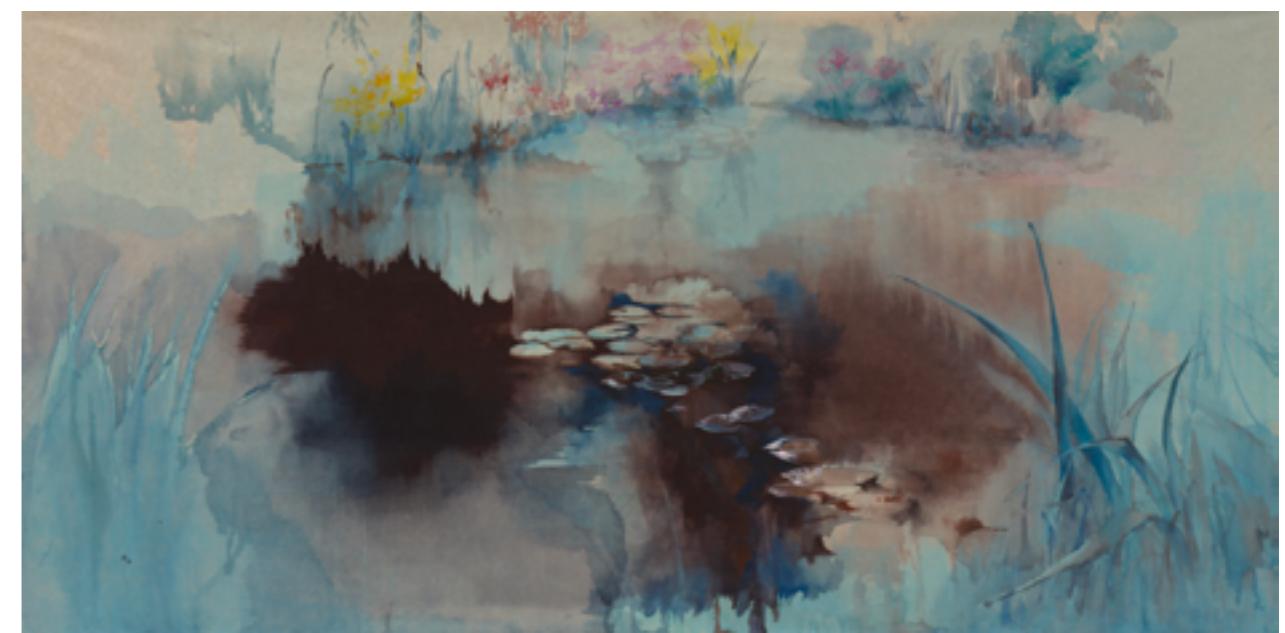
현대의 우리는 효율과 편의를 위해 자연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종종 이상적인 대상으로 자연을 다시 끌어온다는 점에서 모순을 느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게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

작가에게 그리움의 감정은 아네모이아, 즉 '알 수 없는 노스탈지어'이다. 시작은 친구들 혹은 주변 사람들이 명절에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을 부러워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다. 할머니 댁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에 효율적인 명절 나들이였지만, 일상과는 다른 느낌의 포근함을 느끼고 싶었던 아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시골, 자연은 그리움의 대상이었고 이러한 감정은 이유 모를 향수병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상상 속의 자연은 가장 아름다운 찰나의 순간으로 기억되고, 포근한 쉼의 대상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었던 소망을 반영한다. 따라서 작가는 순간을 붙잡으려 하는 아련한 환상과도 같은 이미지로 자연을 상상하고, 이를 평면에 구현한다.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릿해지기에 이미지는 분명하다가도, 물에 비치는 것처럼 흐려진다. 이는 잔상처럼 자극이 사라진 뒤에도 경험, 감각이 지속되어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작가는 자신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싶은 소망을 마주함과 동시에 모두가 가슴속에 품고 사는 각자의 노스탈지어를 잠시나마 떠올려보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



anemoia#1, oil on canvas, 162.2×130.3cm, 2024



anemoia#3, 한지에 채색, 140×70cm, 2024



anemoia#2, oil on canvas, 162.2×130.3cm,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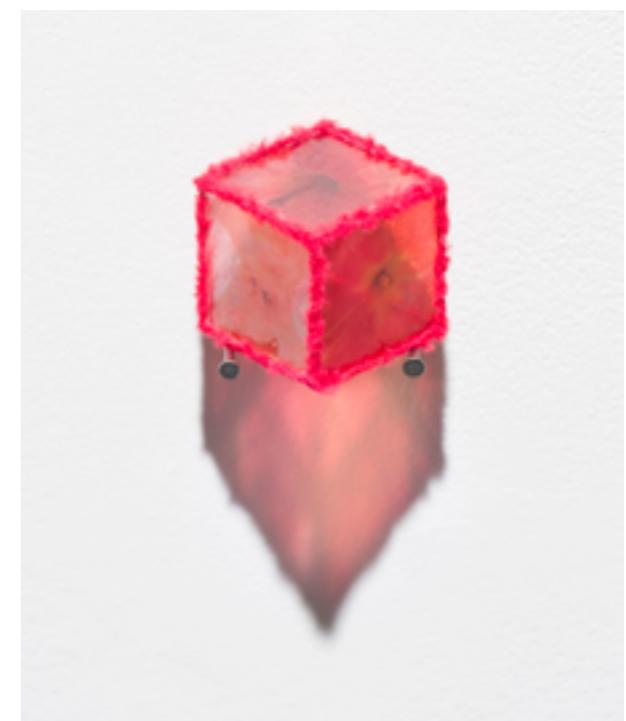
채지혜 Chae Jihye

2008

나는 포장을 통해 기억을 영원히 보존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따라서 저마다의 특별한 기억이 담긴 사물을 압축하고, 엮고, 박제하고, 보관하며 기억의 공허를 채운다.

이야기의 시작은 2008년, 나의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에 대한 기억 회상이다. 과거의 기억은 단편적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기억에 대한 감정은 더욱 선명해지기도, 흐릿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기억의 변화와 흐름을 시각 및 촉각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다. 촉각이라는 감각을 통해 손끝으로 더듬어 만져지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기억의 그 모호함을 표현한다. 나의 자전적인 이야기이자 기억들은 관람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새로운 이미지의 확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개인의 기억이 전이되어 누군가의 또 다른 기억을 환기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방대한 기억 중 한순간을 잘라내어 기록한 허물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기억의 본래 기능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모습 그 자체로 사랑스럽다.

따라서 기억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현재의 감각을 통해 다시금 재구성되고 살아난다. 촉각적 방식으로 풀어내는 작업은, 경험해 보지 못한 누군가의 기억을 자신의 기억 속 빈 공간에 넣어보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기억이 전이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개인의 기억이 단순한 과거의 산물이 아닌, 끊임없이 현재와 상호작용하는 경험임을 느끼길 기대한다.



사과사과 a, 아크릴 판, 텁실, OHP필름, 5×5×5cm, 2024
사과사과 b, 아크릴 판, 텁실, OHP필름, 7×7×7cm, 2024



Packing,
각목, 박스, 우레탄 품,
PVC 천, 시침 핀,
235×192cm,
2024

최수연 Lee Symptom

포인트 니모 Point Nemo

포인트 니모란 태평양 상의 모든 육지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계산하여 지정해 둔 특정한 장소다. 라틴어로 '아무도 없다 nemo'는 의미를 지닌 이곳은 한때 한번 땅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죽음의 장소였고, 인간이 고립될 수 있는 가장 외로운 지점으로 통했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이제는 어디에서나 이곳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찾는 이들은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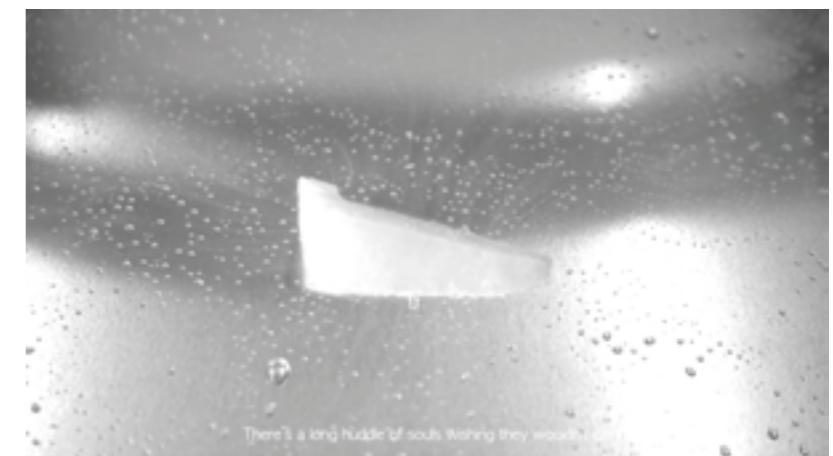
정주지 없음의 감각, 분명 딛고 있는 땅이 있음에도 속할 곳 없다는 역설은 당신을 모든 육지로부터 멀리 멀리, 포인트 니모까지 밀어낸다. 이 여정에는 분노, 각오, 그리움, 인내, 자유처럼 복잡한 감정들이 함께하며 이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시적인, 초월적인 힘이 동원된다.

여기 '나'와 'I', 두 사람이 있다. 'I'는 어느 전쟁의 징집명령을 피해 '나'가 사는 나라로 망명을 떠나왔다. 두 사람은 우연한 '접속'을 통해 소통을 시작하게 되고 서로의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불완전한 대화를 나눈다.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에 동원되길 거부하는 사람, 태어난 고향에 소속감을 가질 수 없는 사람, 하루하루 삶의 범위를 줄여나가는 사람, 미래에 다가올 것만 같은 불행을 털어놓을 곳 없는 이들에게 이러한 접속은 스팸 메시지처럼 미심쩍고 연약하지만, 한편으로 강렬한 위로가 되기도 한다.

이번 작업은 'I'의 계정이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후의 시점에서 출발한다. 작품에 이용되는 조개 껌데기의 반짝임, 유리 기울, 장식장의 이미지 등은 역사적 육망의 대상이었던 동시에 나와 I의 삶에서는 상실되는 것이다. 생존의 문제 앞에 사치스러운 짐이 되는 이미지들은 나의 작업 속 모순이 되어 언캐니를 자아낸다. 영상 작품 *(Point Nemo)*는 사라져 버린 I와 나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불완전한 연결에서 발생하는 인지부조화와 슬픔을 다룬다. 한국어의 '나'와 영어 'I'는 같은 뜻을 갖는다.



Untitled Memory,
photography and resin on seashell, 9.8×6.5×2.3cm, 2024



Point Nemo, single channel video, 2024



Бесполезно(Bespolezno),
oil on wood, 99.9×130cm,
2024

최어진 Choi Eojin

안정-충돌-붕괴

나의 시선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며 혼란을 일으킨다. 이러한 변화를 볼 때마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세상은 겉으로는 질서정연하고 견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미노처럼 무엇 하나만 기울어져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공간이다. 내가 바라는 고요하고 변치 않는 안정감이란 어쩌면 환상일 뿐이다. 나에게 세상은 언제든 무너질 듯 위태로운 것으로 느껴지며, 그 속에서 나는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이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나는 질서와 평온을 찾고자 하지만, 그런 시도조차 순간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불안은 더욱 깊어진다.

나는 이러한 혼란과 불안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미지를 겹겹이 쌓아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하나의 이미지 위에 또 다른 이미지가 중첩되며, 이전의 그림은 감춰지거나 흐려지고 새로운 형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중첩을 통해 세상의 가변적인 성질을 담아내고자 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물의 표면에서 일렁이는 "윤슬"처럼, 나는 이미지들을 반복해서 겹치고 덧붙여 나간다. 물에 비친 형상들은 불안정하고 흐릿하게 남아, 마치 어수선한 세상의 잔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듯하다. 나는 이 중첩을 통해 나만의 공포와 혼란을 해소하려 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형상을 그리며, 나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나만의 시각으로 재현하고 기록한다. 물결 위에 일렁이는 형상을 재현하고, 이미지를 중첩하는 나의 작업은 어수선한 세상의 잔상들을 포착하고, 불안정함 속에서 느낀 두려움의 감각을 해소하려는 시도이다.



기억의 중첩, 캔버스 위에 혼합매체(mixed media on canvas), 162.2×130.3cm, 2024



기억의 중첩(디테일컷), 캔버스 위에 혼합매체(mixed media on canvas), 162.2×130.3cm, 2024



잔상, 캔버스 위에 혼합매체(mixed media on canvas), 40.9×31.8cm(4개 연작), 2024

최지민 Choi ji-min

유영-하다

어린 시절, 자연과 하나 되어 마음껏 뛰놀던 순간들이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생생히 자리 잡고 있다. 비 오는 날 온몸으로 흙탕물 속에서 뒹굴고, 숲을 헤치며 동물들을 마주했던 경험들은 단순한 추억을 넘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때의 자연은 자유롭고 편안하며, 모든 것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내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영향을 주어, 자연이 순환하듯 나 또한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나는 이 심리적 상태를 '자연에서 유영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마치 바람에 흘날리거나 물속에서 유영하듯, 자연의 흐름 속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내면을 반영하는 이미지로 다가왔다. 이 작업은 과거와 현재의 기억 속에 담긴 자연의 순간들을 다시 불러내어 화면 위에 펼쳐놓는 시도로, 정제되지 않은 터치를 통해 자연의 생동감과 자유로움을 구현하고자 했다. 유화 물감과 보조재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던 물성과 빛을 나타냈고, 터치와 질감의 표현을 통해 기억 속의 감각을 되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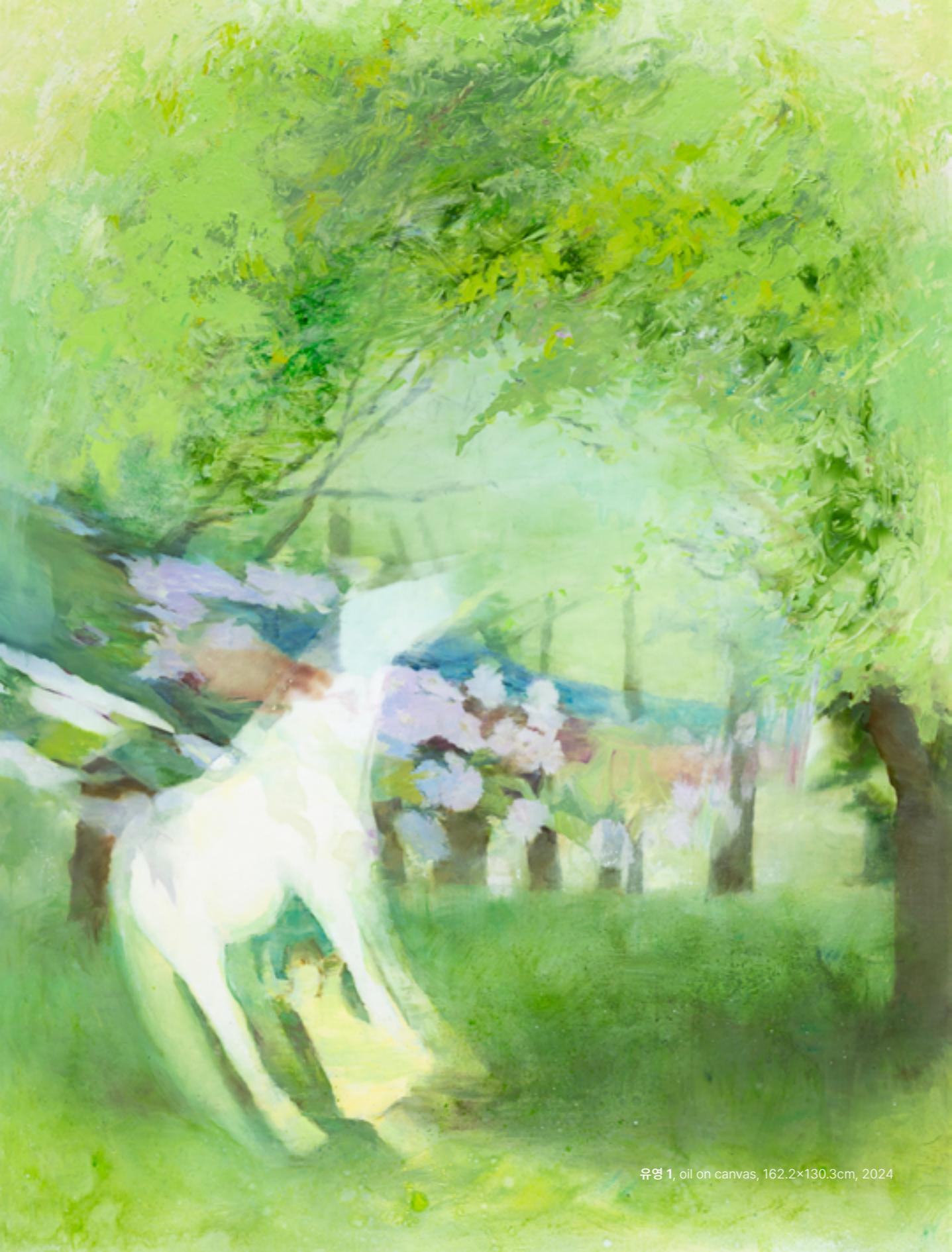
이 작업은 단순히 자연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화면 위에 펼쳐진 이미지는 자연 속에서 느꼈던 편안함과 그 속에서 흘러가는 순환의 감각을 담아내려는 시도이다. 도시의 일상 속에서 점차 자연과 멀어지면서도,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느꼈던 자연의 온기와 감각을 잃지 않으려는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잠시나마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그 순간 속에서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작업은 자연이 선사하는 고요하고 깊은 평온 속에서 각자의 기억 속 자연을 떠올리고, 잊혀진 감각들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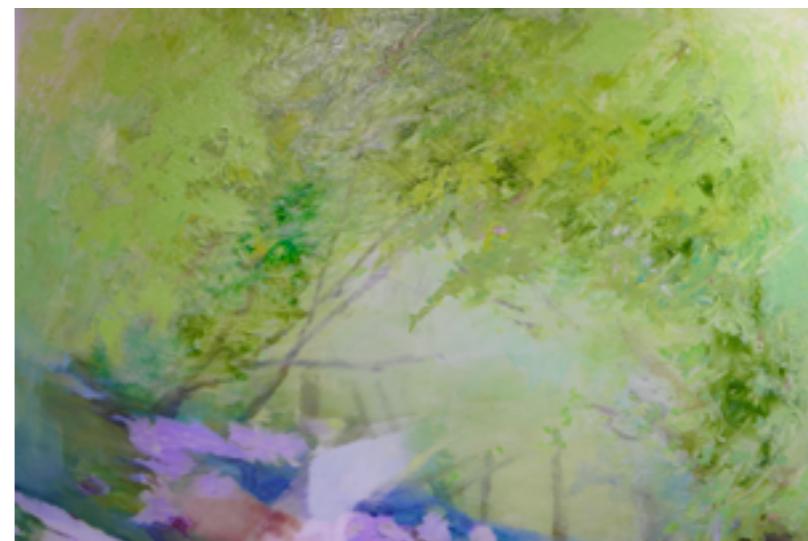
드로잉 습작, oil on paper, 18×12cm, 2024



유영 2, oil on canvas, 193.9×97.0cm, 2024



유영 1, oil on canvas, 162.2×130.3cm, 2024





구여진 | Goo Yeojin

rnduwl045059@gmail.com
010-7523-0450



김지영 | Kim Jiyoung

shinelight1@naver.com
010-2737-1619



송수현 | Song Suhyun

shane6787@naver.com
010-7741-6774



이민진 | Lee Minjin

lxxmxjxx@naver.com
010-5630-1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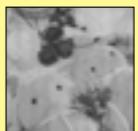
구하연 | Koo Hayeon

hayeonkoo73@gmail.com
010-4784-6818



김태현 | Kim Taehyun

khyun021031@naver.com
010-9214-6967



송유하 | Song Yuha

yuowoha@gmail.com
010-2212-7559



이세환 | Lee Sehwan

mine000711@gmail.com
010-6612-7504



김나영 | Kim Nayoung

yeonnu11@naver.com
010-9871-2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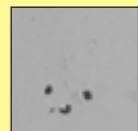
박예진 | Park Yaejin

yaejin28@naver.com
010-5676-5449



신혜민 | Shin Hyemin

hyemin010924@naver.com
010-9105-4648



이송희 | Lee Songhee

songsongsong02@naver.com
010-6338-2295



김다은 | Kim Da-eun

aas9507352@naver.com
010-8647-6469



배지영 | Bae Jiyeong

chaehee@naver.com
010-5880-2727



안현진 | An Hyeonjin

ahj8739@naver.com
010-3737-8739



이수민 | Lee Soomin

kcao2048@gmail.com
010-5132-2881



김영우 | Kim Youngwoo

ghksgnl121@naver.com
010-8200-5029



서진영 | Fregha

frehgaseo@gmail.com
010-6783-6711



오예지 | Oh Yeji

xhdpw1@naver.com
010-5581-7328



이유진 | Lee Yujin

sally2072@kookmin.ac.kr
010-6624-2072



김예나 | Kim Yena

yenafield@gmail.com
010-6899-7943



설윤서 | Seol Yunseo

seolys1010@naver.com
010-6416-9031



유효린 | Yoo Hyorin

pandorosa@naver.com
010-2821-3095



이주현 | Lee Jueheoun

leejh2561@naver.com
010-4544-2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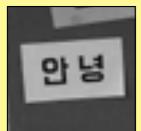
이채령 | Lee Chaeryeong

yslhtt3855@gmail.com
010-9267-3855



채지혜 | Chae Jihye

jiheaa0601@naver.com
010-9894-7434



이현아 | Lee Hyuna

eehyna@naver.com
010-9367-3244



최수연 | Lee Symptom

sysymptom@gmail.com
010-3950-5004



장은수 | Jahng Eunsu

jinajes@naver.com
010-7762-9824



최어진 | Choi Eojin

eojinny1105@naver.com
010-8432-5913



전효빈 | Jeon Hyobin

hyobinn0918@naver.com
010-8949-7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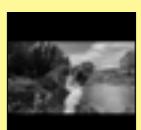
최지민 | Choi ji-min

olysis91@gmail.com
010-5794-7006



정다빈 | Jung Dabin

dabintb@gmail.com
010-6365-1143



조은서 | Cho Eunseo

eunsuh20@naver.com
010-9916-3645

제24회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회화전공 졸업전시
엔트로피 스파이크(Entropy Spike)

2024.12.03 – 12.21

주최	국민대학교
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예술관 K-art Gallery, 1F, 109, 111 전시실
참여작가	구여진, 구하연, 김나영, 김다은, 김영우, 김예나, 김지영, 김태현, 박예진, 배지영, 서진영, 설윤서, 송수현, 송유하, 신혜민, 안현진, 오예지, 유효린, 이민진, 이세환, 이송희, 이수민, 이유진, 이주한, 이채령, 이현아, 장은수, 전효빈, 정다빈, 조은서, 채지혜, 최수연, 최어진, 최자민
교수진	구수현, 권기동, 김보경, 김웅현, 김인영, 김지현, 김태진, 김호정, 김희영, 나광호, 박민희, 서동욱, 서해영, 신장식, 유장우, 이준형, 이희정, 장선희, 정윤영, 조희원, 최지혜, 최태만, 한수정
졸업준비위원장	오예지
회계	이현아
홍보	이민진, 이송희
설치	이세환, 서진영, 안현진
디자인	박예진
포스터 디자인	박서현
도록 디자인	김유정
웹 디자인 및 개발	유환준
촬영	스튜디오 오실로스코프
인쇄	퍼스트경일
발행일	2024. 12.

- 본 도록의 출판권은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회화전공에 있습니다.
-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졸업 작품전은 졸업 논문을 대신합니다.

